

석사학위논문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을 위한
내용구성연구

— “제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조정아

2005년 8월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을 위한 내용구성연구

— “제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봉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 출 자 조 정 아

조정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7월 일

| | |
|---------|---|
| 심사위원장 | 인 |
| 심 사 위 원 | 인 |
| 심 사 위 원 | 인 |

<국문초록>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을 위한 내용구성연구

- “제주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

조 정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봉 수

이 연구는 세계화 및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제주문화정체성의 확립과제와 그것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함양하는 교육과제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보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에 관해서 조사 검토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문제를 탐색하였다. 2장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담론과 교육적 접근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세계화시대에 정체성 담론은 상호 모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것은 ‘공주체적 자아’를 확립하는 ‘다중적 정체성’ 혹은 ‘다중적 시민성’의 확보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이 필요한지를 논하였다. 3장에서는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문화정체성 연구의 두 경향을 전제하면서, 기존연구를 통해서 주장되어온 ‘제주정신’을 검토하였고,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주정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제주정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았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3장에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으로서의 ‘제주정신’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 각 제주정신에 함의되어 있을 세부 덕목을 구체화하고 그의 의미를 해설하였다. 이 글에서 연구자가 선정한 제주정신은 삼무정신, 조냥정신, 수놓음정신, 혼저옵서예 정신, 이어도 정신 등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주정신 및 세부 가치덕목들을 현행 중학교 도덕 교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주정신을 가르칠 핵심 교과는 도덕과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로의 위상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인들에게 문화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확립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 | |
|-----------------------------------|----|
| I. 서 론 | 1 |
| II. 문화정체성 담론과 교육적 접근 의의 | 4 |
| 1. 문화정체성의 개념 | 4 |
| 2.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담론 | 7 |
| 3. 문화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 13 |
| III. 제주문화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 | 18 |
| 1.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 | 18 |
| 2. 기존연구를 통해서 본 “제주정신” | 22 |
| 3. 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제주정신” | 27 |
| IV.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내용구성 | 44 |
| 1. “제주정신”의 선정과 조직 | 44 |
| 2. 세부 가치·덕목의 구체화 및 해설 | 50 |
| 3. 현행 [도덕] 교과와의 연계성 | 63 |
| V. 결론 | 73 |
| 참고문헌 | 76 |
| Abstract | 79 |

표 목 차

| | |
|------------------------------------|----|
| <표-1> 배타심에 대한 인식 | 29 |
| <표-2> 제주인의 부정적인 의식조사연구 | 30 |
| <표-3> 제주인의 생활태도 | 31 |
| <표-4> 가족의식 | 31 |
| <표-5> 지역공동체의식 | 32 |
| <표-6> 앞으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의식 | 34 |
| <표-7>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원자료) | 35 |
| <표-8>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 | 39 |
| <표-9> 지역정신 속에 담긴 시대별 핵심 덕목 | 40 |
| <표-10> 바람직한 제주시민교육의 방향 | 45 |
| <표-11>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이념형 | 46 |
| <표-12> 제주정신과 도덕과 내용체계 | 65 |

I. 서 론

최근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란 용어의 사용이 어디서나 어느 분야에서든 설득력을 얻고 있고, 21세기는 격변상의 시대라 여길 만큼 변화의 폭도 상당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의 모습이란 표면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의식이나 정체성, 태도, 가치관 등도 포함된다. 두 측면의 변화 중에서도 연구자는 후자의 측면, 그중에서도 정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내면적인 변화의 물결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새롭게 재정비 하지 못한다면 변화와 기대 속에서 불어 닥치는 세계화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모습에 따라 우리(제주도민)의 의식 구조나 자세, 가치관 등이 따라오지 못할 때 사회 적응은 물론 문화지체라는 부작용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른다.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는 지금, 특히 세계화의 대열에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모색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우리(제주)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에 접할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제주)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 가치관이나 정신 등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 압력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는 물론 의식변화의 수반 역시 뒤따라야 하지만, 지금 우리(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정신을 새롭게 재창조 할 줄 알아야 하고, 잊고 잃어버렸던 소중한 지역 문화를 되살리는 일도 우리(제주도민)에게는 필요하다. 특히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역사의 흐름은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주도하게 만들고 있다. 즉, 지방과 시민들이 세계화 물결을 주도하고 있고 그 흐름의 주인 공으로 지방과 지역이 나서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 지방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거기서도 제주란 지역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즉, 제주도민들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요망되고 제주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무엇보다 먼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정체성, 즉 지역정체성을 의미하는 바, 제주문화정체성이란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 속에서 수

천 년간 생활해 오면서 형성되고 발전하고 변화해 온 것이다.²⁾ 우리(제주)의 생리나 곁에 맞지 않는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경우 다가오는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속에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제주도라는 환경적 영향에 따른 생활모습이나 의식들이 자칫하면 시대적 변화와 어울려 사라져 갈수도 있다.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제주) 문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내용과 본질이 사라진 표피문화로 제주는 남게 될 지도 모른다.³⁾

무엇보다 제주의 독특한 생리나 곁에 따른 문화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된다면, 제주문화정체성 확립은 물론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비로소 문화적 창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교육이라고 본다. 즉, 앞으로 21세기 국제자유도시 시대를 이끌어갈 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고 볼 때, 이들에게 제주문화정체성을 함양시켜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교육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 논문은 세계화 및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제주문화정체성의 확립과제와 그것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함양하는 교육과제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보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모든 과제를 감당하지는 못한다.

제주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는 제주의 문화 전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인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하여 온 의식이나 가치관, 즉 ‘제주정신’의 이해를 통한 접근이다. 이 중 이 글은 후자의 관점을 택한다. 요컨대,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에 관해서 조사 검토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문제를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이른바 ‘제주정신’을 찾아내는 작업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탐색하여 들어가는 지난한 연구과제일 것인데, 이를 감당하기에는 솔직히 연구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주정신’을 찾는 탐색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정신’의 탐색은 설문 및 의식조사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2) 김항원(1990),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3) 강봉수(2002), 「제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과제」, p. 13-14 참조.

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선행 조사연구들이 있고, 연구자는 이들 조사 결과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에 토대하고 있는 셈이다.

본문의 논의 순서를 간략히 제시해 두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담론과 교육적 접근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정체성의 개념과 유형별 정체성을 살펴보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정체성 담론을 통하여 정체성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이 필요한지를 논하였다.

3장에서는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문화정체성 연구의 두 경향을 전제하면서, 기존연구를 통해서 ‘제주정신’을 검토하며,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주정신’을 돌아본다. 특히 세계화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적 의식근원인 제주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전승되어야 할 정신을 살펴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3장에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으로서의 ‘제주정신’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 각 제주정신에 함의되어 있을 세부 덕목을 구체화하고 그의 의미를 해설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제주정신 및 세부 가치덕목들을 현행 중학교 도덕 교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주정신을 가르칠 핵심 교과는 도덕과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5장의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II. 문화정체성 담론과 교육적 접근 의의

1. 문화정체성의 개념

21세기는 세계화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전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과 아울러 하나의 흐름이다. 세계화의 실체와 함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수렴과, 통합, 상호인식과의 증대로 표상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전례 없는 세계적 시공간의 압축, 급속한 자본과 인구의 이동,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변동은 사회와 일상의 모습을 바꾸며 미세한 수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강요되었다.

세계화는 정보화가 본격화되는 것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인류가 전혀 새로운 역사의 단계를 맞이했다는 성급한 기대마저 불러일으켰다. 기본의 질서가 해체되고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세계화의 동력이 경제 분야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파급력은 비단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때로 모호하다고 비판받기 쉽지만 세계화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 범위의 문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확대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실이다. 문화와 가치의 다양성과 공존이 주장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지만 그것이 세계적 규모로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여 개개인의 행동 기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최근의 변화이다.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자신의 것과 다른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변화이다. 미디어를 통한 접근과 노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행을 통해서도 세계의 '일반인'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견 어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정체성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자기인식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과 같은 변화의 폭이 상당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시점에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문제임엔 틀림없다. 문화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문화정체성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이 세계화의 의미에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생활한다. 정체성은 개인의 수준에서는 물론, 집단의 수준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은 내가 나 또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통해 규정되지만,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내가 속한 집단

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⁴⁾

정체성을 규정하는 범주는 인종, 계급, 지역, 종교 등 다양하며 한 개인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정체성이 반드시 조각된 명확한 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무의식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정체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正體性(identity)이라는 말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여 에릭슨에 의하여 개념화된 말이다.

정체성에 대한 대표적인 에릭슨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략히 다음과 같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 문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는 자신 내부의 지속적인 동일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종류의 본질적인 성격의 지속적인 공유, 둘 다를 함축하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표현한다.”⁵⁾ 또한 “아이덴티티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인 것이다”⁶⁾

그리고 “아이덴티티란, 사람이 자라고 발전함에 따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이다. 그것은 동시에 그의 역사는 물론 미래와 하나가 되는 존재의 공동체 감각을 가진 친근감(A sense of affinity)을 의미한다.”⁷⁾

에릭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자.

휠리스(Wheelis)에 의하면 “정체성은 하나의 일관성 있는 自己感覺이다 그것은 전체감, 통합감, 옳고 그름을 아는 감각,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이다.”⁸⁾ 라고 정의하였다.

웨이거트(Weigert)는 정체성을 “사람들이(개인으로서) 각각의 타인과 그들 자신에게 그것을 통하여 전하는 레테르, 이름, 그리고 범주들이다. 또한 정체성은 조직화된 사회관계의 맥락에서 상황 지어진 생활 과정의 한 단계에서 하나의 유형화된 자기이다”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조성윤(1998), 「제주사회론」, 도서출판 한울, p. 21.

5) 에릭슨(1974), “The problem of Ego Identity” in Identity and Anxiety, ed. Maurice R. Stein, Arthur J. Vidich and David Manning Whit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0), p.38.

6) 에릭슨(1974), Identity : Youth and Crisis, op. cit. , p.183.

7) 에릭슨(1974), Dimension of New Identity (New York : W. W. Norton and Company, Inc. p. 27.

8) Allen Wheelie(1958), the Quest for Identity (New York : W.W.Norton and Company, Inc. , p. 19.

9) Andrew j. Weigert, J. Smith Teitge and Dennis W. Teitge(1986), society and identit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3.

캐처도리안(Katchadourian)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시간을 초월하고 다른 환경아래서 지속적인 개성과 한 사람이나 사물의 동일성을 말한다.”¹⁰⁾

그렇다면 웹스터 사전에서 정의는 어떨까?

“정체성이란 다양한 실예들 속에 있는 본질적이거나 포괄적인 성격의 동일성이다. 그리고 人性의 단일성과 연속성이다.”¹¹⁾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정체성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자기의 동일성, 연속성 내지는 지속적인 自我感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의 동일성, 자아감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유형별로 정체성의 개념을 정리해 보자.

첫째, 에릭슨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自我正體性이다.

自我正體性은 “자아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기 동일성과 연속성, 즉 자기 개성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 양식도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타양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 양식도 인접한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타자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¹²⁾

에릭슨이 사용하고 있는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자기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성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인 어떤 성질을 일관되게 공유하는 상호관계가 암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정체성이란 때로는 성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때로는 의식적인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을 뜻하면 어떤 때는 자아 통합 현상의 준거를 말하고 때로는 집단의 제반 이상과 정체성의 내적 결속의 유지를 뜻하고 있다.

웨이거트(Weigert)는 자아정체성이란 “그 자신의 상황과 그 자신 연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이고 한 개인이 그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들의 결과로서 얻어지게 되는 성격이다.”¹³⁾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으로서의 동일성과 연속성의 감각이며, 개인적 정체성은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그 개인의 현재의 주관적인 自我感”이라 할 수 있다.¹⁴⁾

두 번째로 심리 사회적인 정체성은 “개인의 내적인(자아) 종합과 그의 집단에서

10) Herant A. Katchadourian,(1979), ed. , Human Sexuality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 68.

11) Philip Babcock Gove,(1984), ed. Webster' 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Springfield, Massachusetts : Merriam-Webster Inc. , Publisher, 1984), p. 123.

12) 에릭슨,(1974), Identity : Youth and Crisis, op. cit. , p. 50.

13) Andrew J. Weigert(1986), etal. , op. cit. , p. 15.

14) Barba Ponse(1978), Identity in he Lesbian World,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P. 5.

의 역할 통합의 相補性에 의존한다” 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집단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집단에 공통된 동류의식인 것이다.

세 번째로 집단 정체성에는 민족, 인종, 국가, 종교, 지역, 계급 정체성 등이 있다. 여기서 민족정체성은 “조상 대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이다.” 이고,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특유성과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감정에 의존한다. 즉 국가정체성은 한 개인이 국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내지 일체감이라 할 수 있다. 15)

지역 정체성은 지역 경제에 관한 공통의 인식,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동일한 정치적 시각,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지역 문화의 공유라는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렇듯 집단 정체성과 관련된 각각의 요소들은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무언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물론,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바뀌고,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 조금씩 스스로 바꾸어 가기도 하면서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이상과 같이 정체성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지역정체성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지역정체성은 한 지역 주민들 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그 지역 주민이라는 集團性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 경계가 지속하는 것이다. 또한 地域正體性은 그 지역에 고유한 자질 또는 특유한 固有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인에게 있어 정체성은 제주도라는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떠나 살면서도 제주도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인에게 있어 문화정체성도 제주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생활방식 등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며 제주문화에 대한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개인의 정체성이 아닌 집단 정체성에 그리고 지역적인 삶을 공유하는 자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정신을 중심으로 문화정체성의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세계화 시대 문화정체성 담론

제주도에서 제주인끼리 살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외국으로 나가 살면 비로써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문하게 된다. 많은 제주인 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나아가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가 다른 집단들 틈바구니에 끼어

15) 金榮國,(1987), “國民倫理機能,” 「국민윤리학개론」, 한국국민윤리학회 편, 형설출판사, p. 145.

살아 가려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집단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자기 보존의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히 세계화의 시대이다. 특히 제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 자유도시 건설은 능동적으로 이 세계화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된 노력이라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화의 시대에 정체성을 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화란 각 나라의 특수 가치 내지 민족주의 가치를 초월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정체성 논의는 아무래도 각 나라의 전통문화의 보호와 애국심을 포함하는 자국의식의 강화 등 민족주의 성향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면 타당하면서도 틀린 관점이라 연구자는 여긴다. 연구자의 관점은 오히려 세계화 시대에 정체성의 확립은 더욱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최근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⁶⁾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우리 지성계에서 주요한 하나의 담론 주제로 등장해 있다.¹⁷⁾ 그것은 제주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¹⁸⁾ 우리가 아는 한 어떤 국가나 민족, 지역사회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만큼 해당 주체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이다. 정체성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특정 주체를

16) 이하 논의는 고성준, 강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pp. 392-398.

17) 대표적인 최근의 논저를 들면,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서울: 책세상, 1999); 사회와 철학연구회,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서울: 이학사, 2001)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대규모의 담론장은 2000년 6월 27~2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한 한국학국제학술회의였다. 이 학술회의의 대 주제는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이었는데, 10분과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분과주제를 보면 1분과: 他者와의 만남: 歷史的 觀點, 2분과: 韓國人의 正體性과 南北 이슈, 3분과: 公演藝術과 미디어에 나타난 韓國人의 正體性, 4분과: 韓國 宗教의 正體性 摸索, 5분과: 儒敎의 正體性과 갈벌 이슈, 6분과: 韓民族 分散과 正體性의 再構成, 7분과: 文學, 言語, 思想으로 본 正體性의 形成, 8분과: 現代 韓國人의 性 正體性 變化, 9분과: 韓國人의 正體性에 대한 世界化의 挑戰, 10분과: 地球化 時代의 새로운 韓民族共同體의 意味 등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00. 6) 참조.

18) 먼저 의식조사를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과 제주정신을 찾으려했던 논저로 김항원,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1996) 등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제주정신을 탐색하여 그것의 본질을 “海民精神”으로 제시한 송성대의 『濟州人의 海民精神』(제주: 제주문화, 1996)이 있다. 아마 이 책은 제주정체성 문제를 다시 쟁점적 담론의 주제로 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다. 송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조성윤,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2』(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담론장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찾기” 세미나와,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가 주최했던 세미나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1세기 제주문화예술의 새로운 방향 찾기」 세미나 자료집(2001.10); 제주문화예술연구센터,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의 미래」 세미나 자료집(2001.12) 참조.

계속 그 주체로 남게 하는 특성”이고 “나를 계속 나이게끔 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¹⁹⁾ 그런데 이런 특성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그런 주체(나)가 그것과 다른 것(타자)에 의해 어떤 측면에서든 그 지속적 존립이 의문시되는 경우이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정체성 담론은 등장하게 되거니와, 그 정체성 담론이란, “<나와 다른 남> 또는 <달라진 나>를 한편으로 하고, <여전히 살아가야 할 나>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이 양자의 관계에서 그 <나>에게 조성된 위기에 대응하여 <나를 계속 나로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을 <나의 정신>안에서 특정 형태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 태도 담론”²⁰⁾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논의 구도에서 볼 때, <나>는 한국, 좁게는 제주이고, <타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문제 삼는 지점은 <나=한국, 제주>와 <타자=세계>의 관계에서 <나=한국, 제주>에게 조성된 위기에 대응하여 <나=한국, 제주>의 정신을 특정한 형태로 재창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가 그동안 대처해 온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은 다음의 둘 중의 하나다.

첫째는, 한국문화(제주문화) 혹은 한국정신(제주정신)의 순수성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폐쇄적 입장이다. 외래에서 유래한 모든 것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찾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입장의 사람들은 전통과 정통을 중시한다. 가까이는 전통의 입장에서 서양적인 것(미국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에서부터 멀리는 정통의 입장에서 중국적인 것(유교, 불교, 도교)까지도 배제시켜 원조 한국철학 내지 정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²¹⁾ 이러한 입장은 한마디로 모든 타자를 거부하는 극단적 자민족 중심주의자들과 원조 콤플렉스에 매인 자들이다.

원조 콤플렉스에 매인 정체성 담론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내면적 열등감에서나 운위될만한 것으로, 강대국에서는 문제조차 제기되지 않는다.²²⁾ 오히려 그들에게서 제기되어 왔던 것은 근대와 이성, 계몽과 문명, 그리고 보편의 이름으로 가장해 왔던 문화제국주의적 자민족 중심주의였다. 약소국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이라면, 강대국의 자민족중심주의는 문화보편주의의 횡포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또한 지난 세기 동안 이러한 패권적 문화에 휘둘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패권적 문화의 궁부를 떠나서 한국사회(혹은 제주사회)의 생활문화는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잡종의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세계

19) 홍윤기, 「지구화의 조건 안에서 본 문화 정체성과 주체성」, 사회와 철학연구회, 위의 책, p. 62.

20) 홍윤기, 위의 글, 같은 쪽.

21)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주정신을 찾는 이가 있다면, 그는 외래적인 것에 한국적인 것까지 포함시켜 배제시키고 원조 제주정신을 발견하려 할 것이다.

22)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지음(2000),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p. 131.

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이러한 양상은 더욱 커지면 커졌지 순수성을 찾아 그것으로 재무장하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둘째는, 순수한 한국적인 것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타자>와 <나>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나=한국, 제주>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최근에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김여수, 탁성산, 홍윤기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제국주의의 거부, 보편주의의 해체와 상대주의의 극복을 주장하는 점에서 이들은 공통분모를 이루지만,²³⁾ 그 전략적 방법이라는 각도에서 입장을 달리한다.

먼저, 김여수는 일찍이 정체성 추구를 위한 작업을 ‘문화종합의 과제’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²⁴⁾ 즉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은 나에 대한 현상적 기술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어서 하는가?’라는 미래지향적이고 규범적인 질문임을 전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대답은 한 개인의 역사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조건들과 그가 설정하는 규범적 기획에 내재하는 목표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만 주어질 수 있는 성찰적 물음”²⁵⁾이고, 그것이 곧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체성 구성의 작업, 즉 문화종합의 과제란, 자연이나 역사에 의하여 규정된 원초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토대를 넘어 “한 집단의 생활세계에서 생동적으로 작용하는 관념과 가치, 믿음과 태도, 관습과 행동양식, 제도와 규칙들을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에 미루어 새롭게 조명하고, 수정하고, 확장함으로써 하나의 정합적이고 응집력 있고 총체적인 집합을 이루어나가는 작업”²⁶⁾을 말한다.

다음으로, 탁성산은 정체성 구성의 전략으로 ‘민족적 양식에의 세계적 속성’론을 주장하고 있다.²⁷⁾ 즉 그는 세계화 시대에 정체성 구성의 전략으로는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어 미국적인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미국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을 통해 표현하든지 해야 한다. 아니면 한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의 공통 속성을 찾아내어 구현하면”²⁸⁾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계적인 것의 속성을 한국적인 양식에 담아내

23) 그러나 문화제국주의의 거부, 보편주의의 해체와 상대주의의 극복을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이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점은 여기서 논외로 한다. 특히 탁성산과 김여수의 논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홍윤기, 앞의 논문 참조.

24) 김여수(1997), 「문화주체성의 이념과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 『언어와 문화』(서울: 철학과 현실사,) 참조. 여기서는 김여수, 「정체성: 지구화와 파편화 사이에서」, 『새 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제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6), p. 9~17 참조.

25) 김여수(2000), 「정체성 : 지구화와 파편화 사이에서」, 위 논문, p. 12.

26) 김여수, 같은 논문, p. 13.

27) 탁성산(1999), 『한국의 정체성』(서울: 책세상) 참조.

28) 탁성산, 같은 책, p. 75.

는 전략의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²⁹⁾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우리’라고 한정되어 불리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특수한 개성으로, 현재성(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대중성(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주체성(우리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갖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³⁰⁾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홍윤기는 ‘문화혼합’ 시대의 ‘공주체적인 혼성 자아’(co-subjective hybrid ego)론을 주장하고 있다.³¹⁾ 그는 “한국인의 생활과정은 끊임없이 여러 문화 종들을 뒤섞어(즉, 문화혼합) 각자 스스로를 자기 요량대로 알아서 ‘자기 살기에 적당한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³²⁾이었고,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내면에는 문화적으로 철저히 잡종 교배된 각종 ‘혼성 자아’들이 들끓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조건 아래에서 추구되는 정체성이나 주체성은 그 어떤 순종성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할 수 없다. 오히려 강요된 이질화의 압력 아래에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생활권과 생활 영역, 그리고 생활방식을 선별하여 자아를 구성할 토대를 구축하고 선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관건”³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문화혼합(세계화 혹은 지구화)의 시대에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략³⁴⁾ 우선, “자아 그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자아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이 위협받을 수도, 보장받을 수도 있는 생활 과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부터 자각해야” 하는 바, “이런 상태에서 생존해야 할 ‘나’는 우선 다른 ‘나’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또 그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는 공생의 모델부터 습득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전개할 생활 영역,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엮어 갈 자신의 생활양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여기서는 “모름지기 어떤 강력한 자아도 세계 전체를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의 자아는 그 안에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정신의 여색을 항상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존립하는 자아, 즉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생활권에서 자신이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런 자아의 태도를 홍윤기는 ‘공주체적인 혼성 자아’의 태도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체성 담론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했거니와, 우선 첫 번째의 ‘순수성’ 추구를 통한 정체성 담론은 강대국의 문화제국주의적 태도와 함께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보편과 특수, 우월과 열등, 문명과 야만, 적

29) 탁성산, 같은 책, p. 71.

30) 탁성산, 같은 책, p. 81~117참조.

31) 홍윤기, 앞의 논문 참조.

32) 홍윤기, 같은 논문, p. 69.

33) 홍윤기, 같은 논문, p. 71.

34) 홍윤기, 같은 논문, p. 72~73.

과 동지 등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편 가르느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주장했듯, 이미 문화잡종 혹은 문화혼성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외국에서 유래한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체성을 추구하는 작업은 일단 두 번째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한국적인 것’(혹은 ‘제주적인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필요하거나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적인 것의 ‘순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제주)의 자연이나 역사에 의하여 규정되어온 ‘문화문법’(cultural grammar)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작업에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아니 너무나도 강대한 패권적 문화침투에 노출되어왔기 때문에 그럴 여가가 없었다. 패권적 문화침투가 가져온 잡종의 문화이기에 여기에는 문화구성원들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주체성과 자아의 상실은 곧 정체성의 상실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학계 일각에서 정체성 담론이 주요 쟁론으로 떠오른 것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강한 반성인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타자>는 <나=한국, 제주>의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체성의 재구성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타자>와 <나>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나=한국, 제주>의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출해야 한다. 정체성 창출의 방법으로 김여수의 ‘문화융합’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할 목표를 적시해 주고는 있지만, 현재에도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문화종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별작업을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 점에서 “강요된 이질화의 압력 아래에서도 자기 삶을 살아갈 생활권과 생활 영역, 그리고 생활방식을 선별하여 자아를 구성할 토대를 구축하고 선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홍윤기의 주장은 주목된다. 말하자면 홍윤기가 정체성 재구성 작업의 출발점을 적시해 주고 있다면, 김여수는 그 목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읽으면, 홍윤기는 교육의 출발과 과정을, 김여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적시해 주는 셈이다.

문화정체성 혹은 정체성 재구성 작업을 이상에서처럼 읽을 수 있다면, 앞서 제기했던 세계화와 정체성의 문제는 결코 모순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 시대 정체성의 재구성 작업은 ‘공주체적 혼성 자아’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홍윤기가 적시했듯, ‘공주체적 혼성 자아’는 타자와 공생할 수 있는 정신의 여백, 즉 관용의 정신을 내장하는 자아이다. 관용의 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될 핵심적 자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용의 정신이란 어떠한 인종적 편견이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을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는 정신이며, 인간의 다양성과 유사성, 인간 각자의 개성과 차이, 그리고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독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을 함장 하는 자아들(민주시민, 세계시민)은 그들의 소속하는 공동체들의 안녕과 복지를 존중하고 그 공동선을 위하여 다른 시민들과 협동해 나간다. 홍윤기가 적시했듯, 이러한 자아들은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자신의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생활권에서 자신이 성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의 확대된 의미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로 지향하는 공동선도 가정의 행복, 조직의 안녕, 지역사회의 복지, 나라의 융성, 세계 전 인류의 복리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같은 기초적인 공동체의식은 학교, 이웃,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 차원의 공동체의식의 기초가 된다. 자기 거주지역이나 고향, 그리고 자기 출신학교의 운동선수를 열렬히 응원한다고 해서 그 상위 차원의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나라 애국심이 그 상위공동체인 세계 공동체의식 내지 인류애와 박애정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애 없이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고 인류애, 박애정신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지나친 민족주의의식이나 국가지상주의의식의 형성으로 민족과 국가 간에 갈등과 대립과 전쟁을 유발하게 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폐쇄적이고 쇠국주의적 민족주의나 국가지상주의는 오히려 고립되고 낙후되면 중국에 가서는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교육도 확대된 의미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다중적 정체성의 확립’과 아울러 각기 소속되는 공동체의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질, 즉 ‘다중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시민 교육적 과제가 이처럼 ‘다중적 정체성의 확립’ 이라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자국의 문화적 전통에 토대를 둔 정체성 확인 작업부터 출발하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3. 문화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도래 하고 변화의 폭이 상당한 요즘 국경과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제주란 곳의 문화나 전통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겨주고 있는가? 제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며 제주도만이 독특한 문화나 정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의 물음이다.

시대가 변화되고 다양한 문화들이 전개되어 나타날 때에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처럼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하고 국가 간 지역 간 경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생활모습을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지금 같은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과 모색을 요구할 때에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지역적 전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올바른 자세는 바로 자신이 속한 문화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맞는 의식이나 자세, 태도 가치관등을 지닐 때 문화정체성 확립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역적 문화를 바로 알고 가치관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며 세계화 추세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보존해야 하는 것, 이를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이 필요한 것도 여기서 멀지 않다. 제주가 최근 국제자유도시건설과 평화의 섬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동북아의 메카로서 제주가 그 위상과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도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역적 문화나 전통도 바로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경우 문화정체성 확립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것 역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제주문화정체교육은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외래문화의 창조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과제되어야 한다.³⁵⁾

‘창조적 수용’이란 단순히 외래의 가치나 문화를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짐’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단순히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짐’에만 국한될 경우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먼저 ‘수용’ 혹은 ‘받아들임’과 ‘받아들여짐’사이에는 개념적으로 큰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손님을 마중하는 행위는 그를 받아들이는 일과 같다. 손님을 잘 받아들이는 행위는 주인 스스로의 생각에 어떤 능동적 ‘예비규정’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나는 손님을 잘 청소된 안방이나 응접실 또는 여름철에 정원에서 맞이하지 아무런 예비규정이 없이 들판이나 쓸쓸한 곳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예비규정을 준비하지 않고 불시에 손님의 내방을 받으면 그것은 엄밀한 뜻에서 손님을 받아들임(receiving)이 아니고 손님에 의하여 내방당함(undergoing)이 된다. 이처럼 외래문화를 수용하든 또는 손님을 맞이하든 모든 수용은 결코 피동이 아니고 어떤 주체적 능동성에 입각한 예비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창조적 수용’이라 했을 때, ‘창조성’의 논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나무 접붙이기’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우리가 보다 품질이 좋은 단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돌감나무와 단감나무를 접목시킨다고 하자. 이때 대

35) 강봉수, 앞의 글.

목은 어떤 나무이어야 하고 가지는 또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대목은 돌감나무이어야 하고 가지는 단감나무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얻게 되는 감은 어떤 것인가? 물론 외형이나 맛이 모두 단감이다. 그러나 사실 얻어진 단감의 맛은 이전의 맛에 알파가 더해진 품질이 향상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자세이고 문화 창조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단감을 얻으려 돌감나무와 접붙이지 말고 단순히 단감나무만 들여왔다고 해보자. 이 때 단감을 얻기는커녕 생리에 맞지 않는 단감나무는 말라죽든지 단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품질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를 외래문화의 수용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외래의 표피문화만 들려오고 내용과 본질이 빠져버린 꼴이 되는 것이다. 또 단감나무를 대목으로 하고 돌감나무를 가지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 때도 마찬가지로 얻으려는 돌감은 여리기도 전에 나무가 말라죽든지 더 형편없는 돌감이 열려 먹을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예전의 외래문화 수용이 혹시 이런 형국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해방 후 우리는 전래의 대목은 무시한 채 가지만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가지와 대목을 뒤 바뀐 것은 아닌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제자유도시 건설로의 제주문화도 우리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생리’라는 용어이다. 우리(제주)의 ‘생리’나 ‘결’에 맞지 않는 외래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일 경우 우리(제주)는 다가오는 세계화와 국제자유도시 속에서 다시 한 번 허우적대는 무주체성의 민족(제주인)이 되고 말 것이 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대목에 해당하는 ‘우리 것’(제주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계화의 흐름이 맞닿을 때 비로소 창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우리 것’(제주 것)의 국제화·세계화도 모색된다. 따라서 제주문화정체교육은 이러한 제주의 ‘생리’에 관한 반성적 성찰이고 국제자유도시 시대 새로운 문화 창조를 대비하는 교육이 된다.

둘째,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제주인들의 ‘평화의 섬’ 만들기를 위해서도 제주문화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제주가 추진해온 ‘평화의 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주의 평화 문화적 전통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³⁶⁾

평화의 섬 만들기에 함의된 평화의 개념은 전쟁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평화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란 인간에 의해 자행되는 모든 소외와 억압, 지배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연 파괴 문제, 공해문제, 전쟁과 핵문제, 빈부격차 문제, 성·계층·지역·종교 간 차별과 갈등의 문제들에 대한 경고가 함의되어 있다.

자연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며, 개발

36) 고성준,

이 이루어지더라도 친자연적인 개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화는 제주의 전통문화와 평화 지향적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자만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그 내에서만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다. 이러한 의미의 인간은 자연과 문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인 바, 이것이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는 인간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과 평화의 이념은 제주의 평화 문화적 전통에 의한 것이다.

제주도의 자연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웠다. 땅은 메마르고 바람은 모질고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며 눈은 드물고 지천으로 깔린 돌맹이는 너무 구르고 자칫하면 물난리를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모질기만 한 지리적 여건 위애다가 거듭거듭 고난의 역사가 덮쳐놓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제주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이 섬을 지켜온 것일까? 제주인을 제주인답게 해 온 그 불가사의에 가까운 저력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바로 제주정신이다.³⁷⁾

대표적인 문화적 전통으로 삼무정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다는 삼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인류가 바라는 궁극적 이상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둑과 거지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며 대문역시 이를 없애서 지낼 수 있을수록 좋은 일이다.³⁸⁾ 제주인들은 이처럼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삼무정신을 메마른 땅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실현시켜 왔다.

삼무정신이란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제주사회에 삼무를 실현시켜온 정신, 또는 영원한 미래까지 삼무를 지향하는 정신인 것이다. 요컨대 삼무, 즉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문화적 유산은 평화의 가장 원초적 정형도 의미한다. 최근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다시 복원 시켜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제주인들의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³⁹⁾ 다시 말하면 긴 역사동안 제주인들이 간직해 온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적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끝으로, 문화정체성 교육의 의의는 최근 세계의 교육적 동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최근 세계 교육의 동향은 기존의 자유주의 교육에 치우쳐 왔던 데서 벗어나 공동체주의에 터한 교육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자유주의적 교육이론은 자율성, 합리성 등과 같은 개인의 존엄성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사회적 본

37) 고성준(2000), “남북화해협력시대와 ‘평화의 섬’ 제주”,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평화의 섬 구상과 초등통일교육」, 세미나 자료집, 제주교육대학교.

38) 양중해·현용준 외(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도, p. 16.

39) 문정인 외(1992), “동북아 질서와 제주도 : 평화의 섬 구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전환기의 제주』, 제주국제협의회 편,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1집, p. 83.

질 및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교육은 개인적 자유, 권리 이익, 판단 등을 강조한 나머지 자신이 속한 역사, 문화, 지역적 뿌리, 정체성 함양 등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소홀히 하여왔다.⁴⁰⁾ 이러한 교육의 결과로 인간관계를 분리적이고 단절적인 것으로 만들어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고립된 개인, 자기소외, 자아와 정체성 상실, 고독한 균중의 탄생,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왔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나의 권리와 이익을 앞세우는 개인주의는 자연스럽게 이기주의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발판을 제공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현대적 삶의 양상인 듯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보다는 나의 이익추구와 나만 편하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사회풍조, 치열한 경쟁과 갈등, 지배와 불평등, 이해타산에 기초한 형해화된 사회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에 폐해에 반성하며 80년대 중반이후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동체주의적 교육인 것이다. 공동체주의적 교육은 인간생활의 목적, 이상으로서의 공동체에 개념을 중시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자아, 지역과 문화적 관계를 중시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또한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유주의적 교육과는 달리 지역과 공동체의 역사, 문화, 전통, 상징체계, 의식, 이야기 등을 다채롭게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⁴¹⁾

이처럼 공동체주의적 교육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왔었던 현대 교육에 대한 하나 처방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⁴²⁾ 또한 세계화 시대에 문화정체성 교육의 당위성도 이러한 세계 교육적 추세에 부응할 때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40) 개인과 사회와의 관련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의 공동체주의적인 시각은 교육을 '사회화(socialization)'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동일시될지 모른다. 그러나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화'란 개인의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받아들임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란 사회의 피조물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단지 사회적 삶의 양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자아를 사회적 맥락과 분리하여서 파악할 수 없고, 사회문화적 요소가 개인의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개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인간 개인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private)과 공적인 것(public)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보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는 역동적,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시각이다. 사회화의 공동체주의의 구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은 문화의 해석자이자 문화의 원천자, 의미의 부여자가 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그러한 위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1) 추병완(2000), 「도덕교육의 이해」, p. 124.

42) 진교훈 외(1999), 「윤리학과 도덕교육」, 경문사, p. 367.

Ⅲ. 제주문화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

1.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

제주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주인의 집단적인 정체성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닌 사회적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이를 드러내주는 문화적 특징이나 사건을 통해 파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식 구조를 설문 등을 통해 추정하기도 한다.⁴³⁾

이러한 연구방안들은 그동안 제주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 속에서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과 역사적인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인지를 살피는 고려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주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밝혀둔다.⁴⁴⁾

제주 문화정체성은 곧 제주 섬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즉, 옛부터 제주 사람들은 육지부에 대하여 제주도라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해 왔으며, 거기서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하는 점이 정체성의 내용을 이룬다. 제주문화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제주도라는 일정한 동일 문화권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문화정체성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으로 도드라져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제주정신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정신 논의의 시발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정립과 생활 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한 집중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시작은 1979년도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제주도와 협력하여 ‘탐라정신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즉 제주도라는 행정기관이 새마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인의 전통적 정신이 무엇이었나를 추출하여 이를 하나의 덕목으로 내세워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지는 것이었다.⁴⁵⁾ 그 연구의 결과는 ‘삼무정신’이 곧 제주인의 정신이라

43) 김항원(1999), “제주도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4) 현용준, 1978 ; 박재환, 1977 ; 고창훈, 1984 ; 유철인, 1984, 1986 ; 이기욱, 1989 ; 이창기, 1992. 설문조사를 통한 제주도민의 의식 구조 검토는 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고 (KBS 제주방송총국·제주대 동아시아 연구소, 1997 ; 송성대외, 1997).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문화 분석을 통한 제주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검토하는 작업들이 가장 깊숙한 문제의식을 잡아내고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 정신을 찾아 보급하려는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 작업과 실천 운동이 있었다. (김영화·현길언, 1980; 송성대,1984; 제주도,1983).

는 것이었다. 이 정신은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의 정신덕목으로 선정되어 다소의 이견과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⁴⁶⁾

그러나 도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외지인이 바라보는 ‘삼무(三無)’는 제주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정신’이란 낱말과 결합될 수 없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도독과 대문과 거지가 없었다는 건 극심한 궁핍과 특히, 육지부에 비해 빈부 격차의 상대적인 약화에서 나온 자연스런 현상이었지 어떠한 정신이나 심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적어도 무슨 무슨 정신으로 지칭되기 위해선 오랜 세월을 두고 역사적, 사회적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정체성으로 결실된 것이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제 3공화국의 ‘새마을 정신’과 ‘충효 정신’이 체제의 연속화를 위한 국민동원체제 확립과 국가관 정립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기능을 다했듯이, 위로부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 ‘윤리규범’으로 제정되어 아래로 전파된 이념이나 정신(외지인이 본 삼무)은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겠다.⁴⁷⁾

두 번째 연구경향인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제주인의 의식이나 정신도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이론적 설득력이나 실질적인 호소력을 갖기 힘들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조낭정신과 수눌음정신(공동체의식), 자립정신, 평등의식, 이어도정신(개척정신), 신삼무정신, 그리고 최근의 해민정신 등은 대체로 거친 바람과 척박한 토질, 그로 인한 낮은 생산력 등 육지부와는 현저히 다른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풍토 속에서 그 정신이나 의식구조의 형성 배경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서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을 인과적으로 해명하려는 입장은 환경결정론⁴⁸⁾이 갖는 해석상의 오류를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해석방식이나 연구경향은 경제적 토대가 종교, 철학, 예술 등 사회적 의식을 일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속류 유물론⁴⁹⁾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경과 인간, 환경과 문화 사이엔 매우 역동적이고도 변증법⁵⁰⁾적인 상호침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45) <탐라문제연구소> 역사학(김종업) 교수, 언어학(현평효 교수), 국문학(양중해 교수), 민속학(현용준, 김영돈 교수), 경제학(고남욱 교수) 등 5개 학문 분야로 구성됨.

46) 송성대,(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p. 8.

47) 송성대,(1984), 「삼무정신 형성에 대한 지리학적 조명」, 『제주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일념.

48) 환경결정론(천연자연환경결정론)은 문화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환경이 갖는 중요성에 관해 논하는 사회과학이론. 자원·기후·지형 등을 포함해 인간의 물리적 주변 환경을 문화형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 사회적·경제적 요인들, 기타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정한다.

49) 속류 유물론(俗流 唯物論) ; 정신이나 마음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물질적 원리의 근원성, 독자성, 만을 주장하는 철학의 이론, 또는 그 입장을 취하는 속된 무리들을 말한다.

50) 변증법(辨證法) ; 동일률(同一律)을 근본원리로 하는 형식 논리에 대하여,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원

환경에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문화가 환경에 일방적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화가 환경에 영향을 미쳐 그것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기후나 풍토 등 자연 환경적 요소(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는 제주의 지역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나 그 자체가 독립변수로 주도적인 작용을 할 수는 없다.” 51)

따라서 독특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하나의 정신적 토대를 세우는 것은 문화정체성확립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될 수 없으며, 인간과 환경, 문화의 상호 연관 속에 지역정신이 성립되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무리가 없겠고 보겠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관점을 토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람직한 관점은 무엇일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바람직한 요소를 추출해내서 이를 이념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역정신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따라서 제주정신이야말로 도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상징체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다. 이것은 단순히 제주인의 뿌리 찾기 정도의 작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제주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주도민들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묶어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적 대안물을 개발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제주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정신을 정의함에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속한 지역 사회를 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범주화한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정체성이란 지속적인 생성의 과정에 있는 역동적인 실체이며, 특정의 사회 구조적 조건 속에서의 사회적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셋째, 여러 가지 상징적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문화정체성은 자기 집단과 타인 집단에 대한 이미지로 구성되는 정신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정의 삶의 형식으로 구현된다는 점이다. 52)

제주인의 문화정체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인의 삶의 방식과의 관계 속에서

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이다.

51) 김현돈(1997).

52) 신행철(1998),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p. 292.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그 안에 담긴 제주정신을 체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된 제주정신을 기초로 최근까지 조사해 왔던 제주정신에 대한 의식조사결과⁵³⁾를 참고하면서 제주 문화정체성 확립에 제주정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제주정신을 현재 및 미래 지향적 의식으로 체계화 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제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들은 오랫동안 육지부와 격절된 문화환경 속에서 제주도만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문화(문화정체성)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

무슨 무슨 정신을 단일한 집단정체성이라 규정하기 보다는 환경과 문화, 인간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함과 아울러 환경 결정론이 갖게 되는 오류를 피하는 가운데 지역정신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자칫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져 타 지역, 타 문화와의 동화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전통적 가치의 신비화나 이데올로기화를 경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제주정신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두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제주 문화 속에 담긴 제주의 지역정신을 섬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특수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을 경계하면서 제주의 지역정신이 한국 문화의 하위문화로서 부분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국문화의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인의 문화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인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제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제주에서 태어나 다른 지방 또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가? 그리고 외지에서 태어났지만 제주에 들어와 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주인인가 아닌가 하는 범주를 잡는 데서 오는 혼돈이다. 정체성이란 어디까지나 동일한 집단에 대한 귀속 의식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그 집단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더해 제주 정신을 논의함에 있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적 정통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라도 진보적 정통성의 의의가 없었기에 제주인의 의지적인 삶의 정향성(定向性)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겠다.” 라든지 “지역 사회 생존·생활에 버팀목은 누구네가 되었다.” 라는 의지

53) 김항원 외(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KBS, 제주발전연구원(2000),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보고서」.

(will)를 가질 수 있는 지역정신으로서의 제주정신이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염두 하면서 먼저 제주정신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자.

2. 기존연구를 통해서 본 “제주정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제주정신에 대한 논의를 펴 나가고 있지만 공통분모는 역시 환경과 문화, 인간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지역정신은 형성되고 하나의 생활철학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자연은 그지없이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운 자연과는 대척적으로 지난날 제주도에 사람이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웠다. 땅은 메마르고 바람은 모질고 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며 논은 드물고 지천으로 깔린 돌맹이는 너무 구르고 자칫하면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이처럼 모질기만 한 지리적 여건 위에다가 거둑거둑 고난의 역사가 덮쳐놓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제주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역척스레 이 섬을 지켜온 것일까? 사실 사람의 삶이라 볼 수 없었던 삶을 어떻게 그 숭한 세월 참고 견디며 꿰뚫어 왔을까? 제주인을 제주인답게 해온 그 불가사의에 가까운 저력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의 정신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술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준 시도가 1979년 10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 의해 개최되었던 『탐라정신탐구 세미나』인 것 같다. 여기서는 각기 전공이 다른 7명의 학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탐라정신의 실체를 찾아 나서고 있다.⁵⁴⁾ 이 7개 분야에서 지적된 탐라정신의 공통인자들을 간추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강自彊(자립自立·자주自主·자조自助·자족自足·자위自慰), 불패不敗(불굴不屈·의지意志·투지鬪志·능동적能動的), 절검節儉(절약節約·검소儉素·절제節制·질박質朴), 강인強靱(견인堅忍·견인堅韌·인내忍耐), 근검勤勉, 실리實利(실용實用·공리功利·실행實行), 항거抗拒, 협부協扶, 선비정신(송조崇祖·송인崇

54) 7명의 발표자와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김종업, 『역사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김인제, 『윤리적 가치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현용준, 『민속을 통해서 본 탐라정신』; 강경준, 『풍토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김영돈, 『민요를 통해서 본 탐라정신』; 고성준, 『자위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양중해, 『문화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정신탐구』 세미나 자료집 (1979. 10).

仁·승례崇禮), 열등의식劣等意識, 진취적進取的, 자위自衛, 개척開拓, 화목和睦, 배타排他, 감상感傷, 정관靜觀

우리는 여기서 이상의 ‘탐라정신’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찾아진 것인지 그들의 연구를 자세히 추적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탐라의 정신문화는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탐라정신의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불패(不敗), 강인(強韌), 항거(抗拒), 배타(排他) 등도 평화를 깨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의 수단으로 발달한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

탐라정신이 ‘평화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적 전통으로 ‘三無精神’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기서 ‘三無’란 盜無·乞無·大門無이다.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다는 삼무정신은 동서고금을 가릴 것 없이 온 인류가 바라는 궁극적 理想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둑과 거지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며, 대문 역시 이를 없애서 지낼 수 있을수록 좋은 일이다.⁵⁵⁾

제주인들은 이처럼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삼무정신’을 메마른 땅,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실현시켜 왔다. 삼무정신이란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제주 사회에 ‘삼무’를 실현시켜온 정신, 또는 영원한 미래까지 ‘삼무’를 지향하는 정신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삼무정신’을 중심으로 ‘제주정신’을 찾는 또 다른 작업이 80년대 초에 이루어졌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한 김종업⁵⁶⁾ 보면, 제주도의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을 제주 정신과 연관시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결론 부분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도민의 비참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불굴불요의 감투정신과 강인불패의 의지를 관철시켜 칠전팔기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제주의 역사를 수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계승시킨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사회적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체질화된 강인불굴의 정신과 근검 소박한 생활신조를 발휘하여 상호부조와 상호협조 그리고 상호신뢰에 의해서 이 비참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한 것이라 하거니와 우리 도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불식(不息)한 근면절약의 협동정신이야말로 탐라의 제주정신을 형성하게 된 골격이라 하겠다.

55) 양중해·현용준 외(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p. 16.

56) 김종업(1983), “歷史的 側面,”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p. 25-49.

역사적 측면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적 시련들을 이겨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지역정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은 제주의 오랜 삶의 모습에서 연면히 흘러왔으며 제주정신이 계승되고 발전하는데 그 기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민속적 측면에서 접근한 현용준⁵⁷⁾은 지리적 환경(풍토성)을 기저에 깔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주도의 삼무는 도적무, 걸인무, 대문무로 육지에서 보는 대문이 없을 뿐이지 제주식 ‘올래’가 있고 섬이니만큼 도적이 없어 육지식 대문은 소용없다. 간혹 볼 수 있는 걸인은 대개 추자도 온 사람으로 ‘추자걸바시’란 것이 그것이다. 거둬 말하지만 삼무는 제주인이 자신을 자화자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외부인이 상호 비교적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제주인의 생활양식의 특성을 말한 것이다.

삼무는 각박한 풍토적 조건과 괴로운 역사적 조건에 굴하지 않고 이를 이겨내어 개척해 온 것으로 그 양속의 민속학적 생성원인과 관계된 집단 의식은 향회, 연자매 관리집단, 용수 집단, 계, 부락제, 수눌음, 증답 등이며, 가족제도와 취락의 혈연구성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도둑을 없도록 했고, 이것이 대문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각박한 풍토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 균분 상속제가 되고 따라서 근검 자립해야만 되어 거지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지리적 폐쇄성으로 인해 제주는 타지역과의 교류 왕래가 극히 드물었고 자연환경 또한 척박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지리적 풍토성을 잘 활용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으며 정직과 부지런함으로 서로를 믿고 맡기며 생활을 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삼무도 이러한 측면에서 거지 없고, 대문 없고, 부지런함으로 도둑을 없게 만들었을 것이다.

양중해⁵⁸⁾는 문화적 측면에서 제주정신을 보고 있다.

57) 현용준(1983), “민속의 側面,”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p. 50-70.

58) 양중해(1983), “文化的 側面,”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p.71-98.

탐라인은 고대로 정직하고 순박한 성품의 소유자다, 이러한 정직, 순박이 탐라를 도무의 고장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 승조사상과 선비기질도 한정된 절해의 고도인 탐라사회에서 도무의 미풍을 구현 시키는 데에 큰 구실을 하였다. 동일한 의의에서 ‘결무’ 를 구현시키는 데에 작용하였다. 좁은 사회 속에서 누구는 누구의 몇 대손인 것까지 모두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거지 노릇을 하겠는가? 거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조상이나 문중에 욕을 보이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름 있는 선비의 후손으로 참을 수 없다.

대문간 혹은 이문간이라 불리는 대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의 구조상 대문이 없다. 이것은 도무, 결무의 고장이라 외침방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외출할 때에는 그 집에 사람이 없다는 표지 그리고 우마 방지를 위해 ‘정낭’만 걸치면 되었다. 그래서 ‘정낭 정신’ 이라는 말도 회자되곤 했다.

순박한 소유자인 제주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였다. 타 지역과의 교류 왕래가 극히 드물어 서로를 잘 알고 있었으며 탐라인 이라는 자부심과 애향심속에 상부상조하며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주정신을 접근한 고남옥⁵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무정신의 연원은 다음 유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노동의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구증가, 산업발전, 부가 증진함에 따라서 곳곳에 부락 단위가 형성되어 가면서 이들의 생활양식은 농경,목축, 그리고 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 하에 공동생활을 영위한 듯 하다. 지금도 그 유풍으로 생각되는 것은 해안 지방에서 표착한 해조류를 공동 분배하여 미역과 가사리, 툫 등의 채취에는 기일을 정하여 입어 하는 관습이 있고 공유의 유풍으로는 공동목장, 부락공유의 멸치 또는 ‘원’ 과 공동어장 등이 있으며 그리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는 계를 조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며 농사시에는 ‘수눌며’ 협동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매워 나갔다.

이와 같이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또한 서로 협동하여 부지런히 그들의 삶을 영위해 왔으며 정직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었고 거지가 없고 서로 믿고 돕는 생활 때문에 자연히 대문의 필요성을 없게 했다. 한편 그들이 사용했던 대문이라는 것은 소위 ‘정낭’ 이라는 것이다.

59) 고남옥(1983), “經濟的 側面,”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p. 99-115.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도 근면, 자조, 협동과 같은 생활 습관에 의거하여 제주인들은 공동 부락형성, 원 단위의 공동조직체 등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제주인 스스로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거지가 없었으며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히 대문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와 삼무정신이라는 대표적인 제주정신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삼무정신에 대한 논란⁶⁰⁾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생활환경이 빚어낸 하나의 정신으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주정신으로서 삼무정신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강경선⁶¹⁾의 풍토적 측면에서의 제주정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땅은 농업에 불리한 화산회토다. 화산 활동의 결과 지척 민빈하며, 자갈 따위의 화산쇄설물이 지표에 깔렸으나 이른바 석다의 풍토다 또한 풍다의 섬이다. 겨울철의 북풍은 10% 넘을 때가 많은 가하면 때로는 20%에 이르며, 폭풍일수는 연중 1/3에 이르는가 하면 흐린 날씨는 연간 180일에 달한다. 이러한 기상조건은 이른바 ‘지척민빈’을 부채질 해 왔다.

‘섬’이라는 격절성 때문에 제주인에게는 고도의 자급생활이 강제되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완결성이 있어야 했다. 이 자기완결성은 생명과 직결되면서 가족 노동력을 전력투구해도 가족의 부양에 불충하므로 여성의 과중노동이 불가피해 왔다. 이런 실정이 도민의 성정은 자연히 자주, 강인, 진취, 신용, 인정 등의 복합구조를 이룩해 온 것이다.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땅은 섬이라는 격절성 때문에 생존을 하기에 더욱 전력투구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가족 부양 및 과중노동이 불가피해 왔다.

기상조건 또한 연간 흐린 날씨가 180일에 달해 바람 많고 돌이 많은 삼다로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불충분하였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강인하고 건강한 정신이 필요했으며 곳곳이 이겨내고자 하는 강인함과 자주성이 더욱 제주정신을 독특한 정신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만들었다.

위에서 제시한 제주정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내용들은 자연 환경이나 여건에

60) 신행철 외(1998). 「제주사회론」.

61) 강경선(1980), “風土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濟州大 論文集」, 제 11輯, 濟州大學校, p. 30-31.

따라 제주정신이 생활 이념으로서 형성되고 변화,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주정신이 지역정신으로서 하나의 이념으로 계승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자아정체성 확립이다. 둘째, 지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행동지침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며 넷째, 지역공동체 의식고양, 다섯째, 미래 지향의 계도력(啓導力)등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어떤 표상되는 이념이 제주인의 정신이 되려면, 제주인으로 하여금 경쟁력이 있도록 인격의 주축을 이루는 진리와 정의가 혹은 옳음과 좋음이 통일된 정신 즉, 지정의(知情意)를 일관하는 통일된 정신으로서 자존심, 자긍심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아정체성 확립과 개방적인 인간이 되도록 가장 제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것 같고 가장 세계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제주적인 것 같은 정신 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인체 피부와 그 보조기능을 하는, 언제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으로 의도함이 없이 스스로 향유되도록 하려면 가장 예스러우면서도 가장 새롭고 가장 새로우면서도 가장 예스러운 것이라야 한다.

지역정체성이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한 지역 주민으로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는 것이며, 제주인에게 있어서는 제주도라는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떠나 살면서도 제주도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주정신이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지역정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정체성 확립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3. 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제주정신”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의식조사결과는 기존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였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제주정신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임을 염두해 두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앞으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의식 또는 정신은 과거의 것과 다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의 삶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이 과거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은

단순히 농업과 어업을 생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 산업형 사회의 그것도 아니다. 제주 사회의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제공하는 도전이 거셀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은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크게 볼 때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경향들은 우리가 이미 직면해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거대 경향들이며 도전들이다.⁶²⁾

이러한 거대 경향 속에서 우리의 의식도 두각을 벗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진취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의 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기에는 역부족인 점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먼저 제주인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의식을 최대한 신장시킴과 동시에, 현재 및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받아들여야 할 제주정신을 찾아보는 것이다.

제주정신을 찾으려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논의들 가운데는 제주인의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질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⁶³⁾ 이는 세계 시민적 자질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기주의이다.

이기주의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로 양분 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공동체적 성격과는 배치가 되는 것들이다. 전통적으로 제주 사회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공동체적 성격은 상당히 해체되고 집단적, 지역적 수준의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또는 지역 이기주의로 개인적 수준의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이기주의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불신 의식이 높은 이러한 이기주의의 확산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연, 학연과 관련된 연고주의이다.

이들은 제주 사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 사회 일반에서 이런 것들은 부정적 의식의 하나로 주장되어 온 것들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회에서 연고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제주 사회가 지역적 고립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로 인해 사람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속되었고, 학연, 지연과 같은 연줄망이 이 사회적 관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첫 번째의 이기주의는 이러한 연고주의

62) 고성준·강봉수(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단법인 제주학회.

63) 김항원 외(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의 한 이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폐쇄주의 또는 배타주의와 같은 것들이다.

폐쇄주의 또는 배타주의는 환경적, 역사적 경험⁶⁴⁾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1> 배타심에 대한 인식

| 문항 | 응답범주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
| 나는 고향이 제주도 사람이 아닌 외지인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낀다. | | 10.8 (69) | 34.4 (220) | 40.6 | 14.2 | 100.0 (639) |
| 나는 육지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는 편이다. | | 8.0 (51) | 25.4 (163) | 47.7 (305) | 18.9 (121) | 100.0 (640) |
| 제주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 | 15.9 (108) | 48.9 (333) | 28.6 (195) | 6.6 (45) | 100.0 (681) |

기준에 연구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해 보았는데, 제주인의 의식 중 부정적 측면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쪽에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적, 역사적 경험 때문인지, 아직도 제주인들에게는 세계시민적 자질과 배치되는 고립, 폐쇄, 배타적이고 의존적인 자세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

64) 사회·경제적으로 제주도는 원래 땅이 척박한데다 바람과 돌이 많아서 농사가 잘 안되고 흉년이 계속되었으며 항상 생활고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후 4.3사건으로 제주도는 황폐화 되었고 수만 명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4.3사건의 희생자와 친척들은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수십 년 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고,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집단적 무의식의 실체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제주도의 역사는 한마디로 곤경과 시련 및 수탈의 역사였으며 처절한 생존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나라들과 문화들이 교류 협력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인이 상대할 사람은 단지, 외지인, 육지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와 의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들과 경쟁해야 하고 공존의 방법을 터득해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2> 제주인의 부정적인 의식조사 연구⁶⁵⁾

단위 : %, 점수

| 문항 | 중요순서 | 첫째 | 둘째 | 평균 |
|--------------|------|------------|------------|------|
| 남존여비 | | 5.3(36) | 3.8(25) | 0.14 |
| 관료의식 | | 12.1(82) | 5.3(35) | 0.29 |
| 배금사상 | | 5.8(39) | 5.6(37) | 0.17 |
| 사대주의 | | 0.7(5) | 1.8(12) | 0.03 |
| 이기주의 | | 35.3(239) | 12.1(80) | 0.82 |
| 파벌, 학연, 지역주의 | | 19.1(129) | 19.1(126) | 0.57 |
| 불신의식 | | 6.5(44) | 14.7(97) | 0.27 |
| 폐쇄주의, 배타주의 | | 8.0(54) | 13.9(92) | 0.29 |
| 적당주의 | | 7.2(49) | 23.7(157) | 0.37 |
| 계(N) | | 100.0(677) | 100.0(661) | |

제주인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의식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료의식이라든지, 이기주의, 파벌, 학연, 지역주의 등에 많은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제주인의 의식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첫째, 독립심과 개인주의이다. 환경적 지리적 측면과 관련되어 나타난 긍정적 의식으로서 독립심과 개인주의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제주인의 의식이 민주주의의 생활 원리와 곧바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도 분명하다.

⁶⁵⁾ 김항원(2000), 「전환기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p. 80. 표 참조.

<표-3> 제주인의 생활태도

| 응답범주 문항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
|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다. | 55.5(381) | 39.2(269) | 4.7(32) | 0.6(4) | 100.0(686) |
|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은 검소하다. | 38.0(261) | 44.5(305) | 15.2(104) | 2.3(16) | 100.0(686) |

제주인들은 자연환경의 척박함과 섬이라는 격절성 때문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싸워 이겨내야 하는 강인함과 풍족하지 않았으므로 절약해야 했고, 부지런한 생활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에게는 강인한 정신과 독립심이 필요했으며 제주인의 의식 속에 연면히 잠재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가족의식

단위 : %

| 응답범주 문항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
|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분가시키는 제주도의 풍습이 좋다. * | 39.2(269) | 44.6(306) | 13.3(91) | 2.9(20) | 100.0(686) |
| 자식이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10.2(65) | 24.7(158) | 30.4(194) | 34.7(222) | 100.0(639) |

| 응답범주 문항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
| 나는 제주도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노부모가 자식과 같이 살지 않고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 24.1(154) | 52.6(339) | 15.6(100) | 7.7(50) | 100.0(640) |
| 나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 46.6(299) | 45.1(290) | 6.1(40) | 2.2(14) | 100.0(641) |
| 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해 주겠다. | 44.4(284) | 40.0(256) | 9.4(60) | 6.2(40) | 100.0(640) |

제주인의 삶을 관찰해 보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려는 성향과 집단 중심보다는 개인 존중의 원리가 일상생활에 잘 배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부모가 힘이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잘 엿볼 수 있으며 사혼제도, 상속제도, 분제(分際)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독립심과 강인함이 제주인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왔으며 이러한 특성은 고스란히 제주정신 속에 담겨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협동심과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들 수 있다.

<표-5> 지역공동체 의식

단위 : %

| 응답범주 문항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
| 나는 제주도 농촌에서 일을 할 때 수눌어서 하는 것이 좋다. * | 36.6(231) | 49.0(310) | 12.7(80) | 1.7(11) | 100.0(632) |

| 문항 | 응답범주 | 정말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계 |
|---|------|-----------|-----------|------------|-----------|------------|
| 나는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조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 | 40.3(274) | 43.0(293) | 13.2(90) | 3.5(24) | 100.0(681) |
| 제주도 사람들은 협동심이 많다. | | 28.3(194) | 48.6(333) | 20.5(140) | 2.6(18) | 100.0(685) |

주) * 문항은 제주지역 응답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제주인은 척박한 토지와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 환경속에서 제주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생활력뿐만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했던 상부상조적인 전통이었을지도 모른다.

농촌에서는 수놓음, 공동목장의 운영, 관혼상제의 협동적 참여 등은 이러한 의식의 산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예들 중 많은 것들이 최근 들어 퇴색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개체화되고 다양화 되면 될수록 상호적 연대의식은 그 만큼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기주의라든지, 파벌 학연 지역주의에 치우친 제주인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문화들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전통으로 모색될 수 있겠다.

셋째, 조냥 정신이다.

조냥 정신은 제주인들이 역사적 시련과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면서 키워오고 내면화 해 온 자립과 근검절약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척박한 토지와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온 제주인들은 근면한 노동과 절약적인 소비생활을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설정해 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70년대 이후 환금 작물과 관광산업의 성공은 제주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상당히 손상시켰지만 여전히 잠재적 제주 정신의 하나로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난관 극복의 미래 지향적 의식이다. 비록 사람들이 둘러싼 환경이 험난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척정신은 제주인의 기상

으로 작용하였다.

이어도는 현실적 불행과 고통이 제거된 낙원 또는 이상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식과 긍정적인 의식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의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또한 기존 분석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표-6> 앞으로 제주인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의식⁶⁶⁾

단위 : %, 점수

| 문항 | 중요순서 | 첫 째 | 둘 째 | 평 균 |
|--------|------|------------|------------|------|
| 진취적 사고 | | 32.5(219) | 10.0(63) | 0.74 |
| 개방적 사고 | | 19.7(133) | 14.0(88) | 0.52 |
| 관용적 사고 | | 16.0(108) | 16.6(104) | 0.47 |
| 합리주의 | | 11.6(78) | 19.7(124) | 0.42 |
| 통합적 사고 | | 5.8(39) | 8.8(55) | 0.20 |
| 이타주의 | | 2.1(14) | 4.0(25) | 0.08 |
| 친절한 사고 | | 12.0(81) | 26.9(169) | 0.49 |
| 인본주의 | | 0.3(2) | - | 0.01 |
| 계(N) | | 100.0(674) | 100.0(628) | |

제주인에게 앞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의식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거하고 현재 및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기존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선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써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래 사회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제주인의 의식임과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에도 분명하다.

제주정신은 어디까지나 정체성을 새로 형성해 나가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

66) 김항원(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p. 82. 표 참조.

지는 것이고 또 그런 정신이란 언제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바람직한 요소를 추출해 내서 이를 이념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제주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왜곡된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 총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현재 및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체성 확립에 많은 의미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 제시한 것들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옮겨다 놓았는데 이를 통해 제주정신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표-7>은 “21세기 제주인의 의식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정신의 상징으로 생활의 지침으로 미래의 비전을 담은 내용을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67)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것은 구조화된 질문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되어 있다. 표는 이러한 대답들의 요점을 나열한 것이다.

<표-7>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 (원자료)⁶⁸⁾

| 항 목 | 계 |
|---------------|----------|
| ▲ 삼무정신 | 17.2(61) |
| ▲ 조낭정신 | 27.5(97) |
| ▲ 자연과 하나 | 0.9(3) |
| ▲ 돌하르방처럼 곳곳하게 | 3.0(11) |
| ▲ 혼(혼)저 읍서예 | 9.0(32) |
| ▲ 인심좋은 섬 | 1.1(4) |
| ▲ 유채의 섬 | 0.3(1) |
| ▲ 감수광 | 0.6(2) |

67) 이 질문은 구조화된 질문이 아니라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되어 있고 표 역시 이러한 대답들의 요점을 나열한 것이다.

68) KBS 제주방송총국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 항 | 목 | 계 |
|---|---------------------|---------|
| ▲ | 주인의식 | 1.4(5) |
| ▲ | 어디감수광 | 2.2(8) |
| ▲ |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 2.5(9) |
| ▲ | 믿음 | 0.6(2) |
| ▲ | 몽생이 | 0.6(2) |
| ▲ | 오편대강 | 0.6(2) |
| ▲ | 협동정신 | 1.9(7) |
| ▲ | 느영나영 정신 | 1.1(4) |
| ▲ | 근면절약 정신 | 1.7(6) |
| ▲ | 정직 신용 정신 | 0.3(1) |
| ▲ | 상부상조 | 1.1(4) |
| ▲ | 잘 지냄수광 | 0.6(2) |
| ▲ | 어서 합시다 | 0.3(1) |
| ▲ | 예절과 친절 | 0.9(3) |
| ▲ | 제주인의 긍지를 갖고 방언을 생활화 | 0.3(1) |
| ▲ | 자립자주정신 | 1.4(5) |
| ▲ | 또 오십시오 | 1.4(5) |
| ▲ | 요망지계 | 0.9(3) |
| ▲ | 평화의 섬 | 1.8(6) |
| ▲ | 모다드렁 | 0.3(1) |
| ▲ | 행복의 섬 | 0.3(1) |
| ▲ |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 0.3(1) |
| ▲ | 개척정신 | 1.4(5) |
| ▲ | 새마을 정신 | 0.3(1) |
| ▲ | 선비정신 | 0.3(1) |
| ▲ | 평안정신 | 0.3(1) |
| ▲ | 정낭 | 0.3(1) |
| ▲ | 수놓음정신 | 3.0(11) |
| ▲ |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 | 1.1(4) |

| 항 | 목 | 계 |
|------|--|------------|
| ▲ | 감귤을 중심으로 집약시킨 말 | 0.3(1) |
| ▲ | 소박 | 0.3(1) |
| ▲ | 결속력 | 0.3(1) |
| ▲ | 송조사상, 조상숭배정신 | 0.3(1) |
| ▲ | 천국 | 0.3(1) |
| ▲ | 지상낙원 | 0.3(1) |
| ▲ | 불 끓는 섬 제주 | 0.3(1) |
| ▲ | 합리적 정신 | 1.1(4) |
| ▲ | 이어도 정신 | 0.6(2) |
| ▲ | 화합과 안정 | 0.3(1) |
| ▲ | 자부심 | 0.3(1) |
| ▲ | 돌처럼 강한 정신 | 0.3(1) |
| ▲ | 미덕과 친절 | 0.6(2) |
| ▲ | 풍요로운 곳 | 0.3(1) |
| ▲ | 하면 된다는 정신 | 0.3(1) |
| ▲ | 탐라정신 | 0.6(2) |
| ▲ | 제주정신 | 0.3(1) |
| ▲ | 예것을 되살리는 것 | 0.3(1) |
| ▲ | 탐라토피아 | 0.6(2) |
| ▲ | 소박하며 건강한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내용 | 0.3(1) |
| ▲ | 현실을 직시하며 눈 들어 한라산의 기상을 한 눈에 담으며 전진한다. 뒤로 돌아서는 태평양의 용지를 가슴 속에 담으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 | 0.3(1) |
| ▲ | 정신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전 도민이 합의하는 일이 중요, 제주정신으로 조냥정신, 삼무정신 보다 진취적인 개념으로 선정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 0.3(1) |
| ▲ | 있는 그대로의 제주도로서 정이 있는 고향 | 0.6(2) |
| ▲ | 고고함과 은은한 미의 상징으로서의 한란 또는 백록담 | 0.3(1) |
| ▲ | ‘무사?’의식 | 0.3(1) |
| 계(N) | | 100.0(352) |

이러한 제주정신에 대한 의식조사를 종합해 볼 때 제주정신은 이처럼 수 천년동안 고립된 섬에 살면서 자연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제주인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통해서 지역 정신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적 전통,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방식이라든지 인간관계 역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문화, 즉 지역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주정신의 내용은 응답자들이 비 구조화된 질문의 형태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주정신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제주인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내려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주정신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 의식조사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제주인들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정신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면면이 흘러온 제주인들의 삶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과거 제주사회의 환경은 사회관계의 세련화와는 거리가 멀었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 환경의 개척이 삶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적어도 제주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중시했던 유교의 원리가 과거 제주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지 못했던 것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유교적 요소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삼무정신을 봐도 그렇다. 도둑이 없다는 것은 훔칠 것도 물론 없거니와 훔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연대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거지가 있을 수 없다. 그 집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 집단에서 추방당할 만큼 부도덕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 사람의 미의식과 가치 체계는 부지런함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빌어먹었다는 기록도 없고 그러한 전설도 없다. 마을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생기면 마을 회의를 하여 그 아이의 성장을 공동으로 책임졌기 때문이다. 놀지 않고 일하는 것은 가난을 공동으로 극복해야 했던 집단적 책임의식이요, 근면 성실하게 노동에 임하는 공동체집단 안에서의 의무는 수눌음정신(노동협업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여건은 대문을 필요 없게 했다. 대문은 한 가정을 닫는 것이며, 다른 가정과는 별개의 독립된 가족을 뜻하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호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제주 사회는 신앙과 노동의 공동체 사회이며, 공동의 노동과 공동의 소유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였으므로 마을 집단의 집과 집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집과 집은 한길을 향하여 집과 집을 통하게 하는 ‘올래(집에서 한길로 이어

진 작은 통로)'가 있을 뿐이다. 대문은 없어도 올래는 있다. 올래는 집과 집의 감정의 통로이며 의사의 통로이다. 마을 누구의 집에도 드나들 수 있으며, 그러므로 서로 내왕하며 살았다.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다는 것은 제주사회 자체가 공동체 사회의 이상적 모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요소를 요약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8>과 같다.

<표-8>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내용⁶⁹⁾

| 제주정신 | 항목 및 내용 |
|-------|---|
| 삼무정신 | 삼무정신, 정낭 |
| 조낭정신 | 조낭정신, 근면, 절약, 소박, 합리적 정신 |
| 혼저웁서예 | 흠저웁서예, 또 오십시오, 또 읍서양, 감수광, 읍데강,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 믿음, 친절, 미소의 정신, 예절과 친절, 상냥, 미덕과 친절, 정직, 신용, 인심 좋은 섬, 잘 지냄수광, 어디 감수광 |
| 수눔음정신 | 수눔음, 협동정신, 상부상조, 너영나영 정신, 나눔의 정신, 모다 드렁, 혼저호게마심, 조금만 더 합시다, 호끔만 더 속읍시다, 새마을 정신, 수눔음정신, 결속력, 화합과 인정 |
| 이어도정신 | 이어도정신, 이어도 가젠허난 속암수다, 천국, 지상 낙원, 불끓는 섬, 풍요로운 곳, 평화의 섬, 행복의 섬, 탐라토피아, 평안정신, 개척정신, 하면 된다는 의식 |
| 기타 | 송조사상, 예것을 되살리는 것 |

아울러 이러한 '제주정신'의 탄생이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현대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제주정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

⁶⁹⁾ KBS 제주방송총국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1996).

면서 이 장을 마친다. 먼저 시대별로 제주정신과 요구되는 가치 덕목을 표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지역정신 속에 담긴 시대별 핵심 덕목

| 특정 정신 | 가치 · 덕목 | 자연 환경 | 전통사회 (60,70년대) | 현대사회 (80,90년대) | 미래사회 (2010년대) |
|----------------|----------------------|----------------------------------|---|---|---|
| 시대적 특징 | | | 농업, 어업 | 감귤산업 관광산업 | 국제회의산업 평화의 섬 첨단지식산업 자유무역항 해양산업 동북아 물류센터 |
| 제 주 정 신 | | | | | |
| 삼무 정신 | 삼무정신, 정낭(도둑, 거지, 대문) | 척박한 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인 바다 역사적 시련 | 열악한 사회적 환경, 경제적 수준 및 절대적 빈곤상태 자연과의 투쟁 고난극복과정을 통해 생존수단 확보 | 상대적 빈곤 빈부격차 심화 사회문제 대두 사회 환경,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못함. 제주인의 무의식속에 자리 잡고 있음 제주사회가 삼무현상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요청됨 | 준법 공공질서 약속 법에 대한 신뢰 존중, 준수, 합법, 정직, 합의 |

| | | | | | |
|------------------|---|--|---|--|---|
| 조 양 정 신 | 근검, 절약 근면, 소박 합리적정신 | | 근면한 노동, 절약적인소비 생활, 자립 자주정신, 독립심, 사혼(死婚) 상속, 분제(分際) | 과소비, 허례 허식적 생활습관 물질적 풍요속에 살아가는 현대 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윤리 민주주의의 생활 원리 환금작물과 관광산업 성공의 원동력 | 합리성 개방성 유통성 자유인 : 자율, 자주, 자립, 독립 정치 참여의 자유자의에 의한 행복 추구 |
| 혼저 옉서예 | 친절, 책임감. 미소의 정신, 예절과 친절, 상냥과 신용, 인심좋은 섬, 잘 지냄수광 어디 감수광 | 척박한 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인 바다 역사적 시련 | 외지인 거리감 경계심 환경의 역사적 경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 | 관광객에 대한 태도와 자세요구 지리적 변방에 위치함으로서 갖게 되는 물리 적 폐쇄주의 관광에 의해 극복 적극적 개방과 대외적 자신감 당당함 | 열린 태도 의식 및 진취적 행동 적극성, 당당함, 자자감, 친절, 인심, 21세기의 덕목 다양성 · 고유성 창의성 · 유통성 수용성 · 차이성 다원성의 존중 |
| 수놓음 정신 | 협동 단결 상부 창조 나눔의 정신 공동체 의식 | | 농촌에서의 수놓음 공동목장의 운영 관혼상제시의 협동적 참여 새마을 정신 도민들의 화합 성공의 원동력 | 개별화, 원자화 분자화 - 공동체 적 연대 민주적 생활원리의 밑바탕 | 도내외 거주하고 있는 제주인의 총화적 단결 참여적 공동체 구현 공동선 · 상보성 공익 · 공덕 · 공영 공동운명 사회적 안녕 복지 · 협동 · 봉사 사회적 책임 |

| | | | | | |
|-----------|--|--|--|--|--|
| 이어도 정신 | 천국, 지상낙원 풍요로운 곳 평화의 섬 행복의 섬 탐라토피아 평안정신 개척정신 | | 험난한 자연환경 현실적 불행과 고통 현실에서 벗어 나고픈 마음 미래지향 험난한 환경극복 개척정신 제주인의 기상 | 가치전도 감각주의 황금만능주의 과학기술만능주의 현대사회의 문제점 대두 도덕공동체 건설 을 위해 노력함 (이상향, 낙원) | 대외적 개척정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상사회 건설 제주사회의세계화 전략의 전제 |
|-----------|--|--|--|--|--|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대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보고 대표적인 제주정신 다섯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과거 제주도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격절성 때문에 기후 조건이나 풍토조건이 열악했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존 자체가 투쟁이었고 강인한 정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삼무정신을 살펴보자.

삼무정신은 열악한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과 투쟁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존수단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제주사회는 감귤과 관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의 절대적 빈곤 상태는 벗어났지만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상대적 빈곤감이라든지, 빈부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는 삼무정신이 주는 의미를 제주인들이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지역정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논란도 제기되고는 있다. 삼무정신은 정직, 신용, 근면, 자주, 정의 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은 물론 변화의 폭이 상당한 요즘 삼무정신 속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 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조낭정신이다.

조낭정신은 근면한 노동과 절약적인 소비생활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정신으로서 과거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생활방식이였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과소비와 허례 허식적 생활습관이 몸에 배이고 있음에 따라 제주정신으로서 조낭정신은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의 윤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환금작물과 관광산업 성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혼저옵서에 정신이다.

제주인들은 환경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자유도시 및 평화의 섬을 건설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위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에도 맞지 않는다. 혼저옵서에 정신 속에는 적극적 개방과 대외적 자신감 및 당당함이 내재해 있고 타지인에 대한 친절과 인심이 묻어져 있다. 이러한 정신은 지리적 변방에 위치함으로써 갖게 되는 물리적 폐쇄주의나 배타적인 의식을 혼저옵서에 정신을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으며 열린 태도나 다양성, 적극성은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네 번째로 수놓음 정신이다.

과거 제주사회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공동목장을 운영한다든지 관혼상제의 협동적 참여 등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제주인들에게 수놓음정신은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별화, 원자화, 분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민주적 생활 원리의 밑바탕이 됨은 물론, 도내 외 거주하고 있는 제주인의 총화적 단결을 모색하는 데도 그 역량이 크다. 참여적 공동체로서의 제주가 동북아의 메카로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제주정신의 하나인 수놓음이 주는 의미는 더욱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어도 정신이다.

험난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현실적 불행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었고 이를 이어도라는 환상의 섬으로 묘사하곤 했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상사회인 이어도를 만들기 위해 개척정신과 하면 된다는 의식이 제주인들에게 내재되어 있어 제주사회의 세계화 전략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어도 정신은 평가되고 있다.

IV.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내용구성

1. “제주정신”의 선정과 조직

이 논문은 “제주정신”에 관한 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문제를 탐색하여 보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러한 연구의 궁극 목적을 수행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기준과 원리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특정 교육을 위한 내용의 선정과 조직되는 기준은 대체로 그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 내지 목표와 관련된다. 즉 교육내용의 구성은 교육목적 내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정되고 조직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을 위한 내용 구성의 원리의 하나는 교육의 목적 내지 목표인 바, 우리는 제주문화정체성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앞서 2장에서, 연구자는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 혹은 문화정체성 교육은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라는 확대된 의미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다중적 정체성의 확립’과 아울러 각기 소속되는 공동체의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질, 즉 ‘다중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제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한 연구의 주장은 도움이 된다. 이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⁰⁾

앞으로 제주시민교육은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세계 공동체 등의 3차원적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그간의 관계 내용에 조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표로 예시해 보면 다음의 <표-10>과 같다.

70) 강봉수, [제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과제], 미출간 원고. p.13.

<표-10> 바람직한 제주시민교육의 방향

세계 속의 한국인이고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역공동체의 건설·유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인류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간의 양성



| 제주지역공동체 차원 | 한민족공동체 차원 | 세계 공동체 차원 |
|---|---|---|
| 제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주인의 양성 |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한민족공동체의 건설과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한국인의 양성 | 세계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하여 오늘날의 세계화·정보화 현상에 적응하고 인류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세계인의 양성 |

위의 주장과 <표-10>를 참고하기로 할 때,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장기적 과제 내지 목적은 “ 세계 속의 한국인이고 제주인임을 자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역공동체의 건설·유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인류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간의 양성” 이 될 것이며, 그것은 예하의 세부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목적은 세부 과제 중의 제주지역공동체적 차원의 “제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주인의 양성”으로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수준은 단연 후자의 단기적 측면에서의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지역공동체적 차원의 정체성 교육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면 될 것이다.

한편으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내용의 구성원리로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앞의 3장에서 검토한 바의 현실적 혹은 미래지향적 ‘제주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고려되는 가운데 ‘제주정신의 이념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바로 위의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구체적 세부 목표들에 해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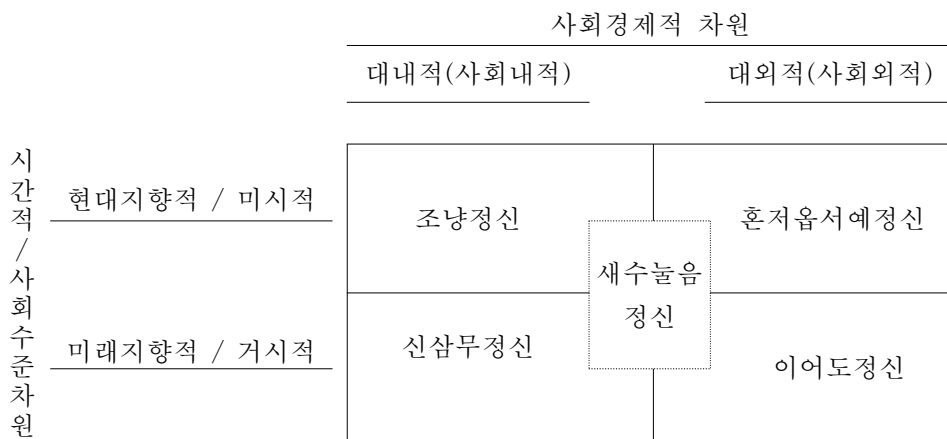
먼저, 제주인들의 정신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인의 자연환경이나 생활방식 속에서 제주정신이 내면화되고 정착되어 제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주사회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내적 측면이 대내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외적 측면은 대외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정신은 과거 제주인의 삶에 다양하게 작용되었지만, 계승 발전되어 미래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혼저옵서예 정신이나 이어도 정신은 현재 및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는 좋은 제주정신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제주정신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에 기초하여 이념형적으로 제주정신의 유형을 설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바람직한 제주정신의 이념형⁷¹⁾



71) KBS 제주방송총국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p. 125. 참고.

제주인이 갖춰야 할 제주정신의 유형은 제주인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주사회의 전통적인 장점과 미덕을 계승하는 것이라야만 한다. 그러한 장점과 미덕은 현재와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공통의 생활정신과 시대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제주인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위 <표-11>의 제주정신의 이념형은 사회 경제적 차원과 시간적, 사회수준 차원의 두 가지 차원을 교차하여 얻은 것인데, 다섯 가지 유형화 된 제주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회 경제적 차원은 제주사회를 대내적 범주와 대외적 범주의 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대내적 범주는 제주사회와 외부사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외적 측면을 가리킨다. 시간적/사회수준차원은 시간과 사회수준을 결합한 차원으로 현재 지향적/미시적 범주와 미래지향적/거시적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전자의 범주가 개별 사회성원들 즉, 제주인들의 현재적 태도 및 행동, 가치관 언행 등과 연관된다면 후자의 범주는 제주사회의 미래 즉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제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주정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제주사회의 대내적인 차원과 관련해서는 조낭정신과 신삼무정신이, 대외적 차원과 연관해서는 혼저옵서예 정신과 이어도정신이 그것이다. 이들은 또한 현재지향적/미시적 사회수준 차원과 미래지향적/거시적 사회수준 차원을 가로지르며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즉 현재지향적/미시적 사회수준 차원과 관련해서는 조낭 정신과 혼저옵서예 정신이, 미래지향적/거시적 사회수준 차원에서는 신삼무정신과 이어도 정신이 위치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차원 네 가지 범주 모두 걸쳐 있는 것이 새수놓음정신이다. 조낭정신이 근검절약적인 대내적 생활원리를 추구하는 만큼 현재 지향적인 미시적이라 할 수 있다. 신삼무정신을 범죄 없고 생산적 노동이 중시되는 대내적 사회구조의 형성을 희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거시적이다.

반면에 혼저옵서예 정신은 대외적 사회관계에서의 자신감과 친절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지향적이며 미시적 자아개념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어도정신은 대외적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거시적 사회수준의 노력을 통하여 평화로운 이상적 사회를 건설한다는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수놓음정신은 위의 네 가지 제주정신을 연결하는 핵심적 고리로 제주인의 단결을 함의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제주정신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① 조낭정신 : 절약 및 부지런함, 자주, 자립정신, 독립심 강조, 개인주의.

조낭정신은 제주정신의 상징으로 제주인들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절에서 제주인의 의식조사연구를 살펴보면 제주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사람들도 모두 제주정신 하면 조낭정신을 대표적인 정신이라 여길 만큼 오랫동안 생활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조낭정신은 절약 및 자립정신, 근면, 독립심 등을 강조하면서, 최근 과소비와 허례 허식적 생활습관이 만연한 시대에 제주인들이 근검절약을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는데 좋은 의미를 남겨줄 수 있다. 조낭정신을 생활화 한다면 조상들의 생활 지침을 현대사회에서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조낭정신이 생활철학으로서 그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② 신(新)삼무정신 : 사회질서 추구, 정의로운 사회재현, 모범적 자치공동체 확립

신삼무정신은 현재의 사회상황에서 삼무현상을 재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삼무정신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전통적인 삼무에서 범죄와 비생산적 삶의 방식의 제거로 사회질서를 도모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가꾸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과거 제주사회는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강인한 생활력이 있어야 했고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남을 타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제주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지키고자 했다.

이러한 삼무는 도둑을 없게 했고 대문이 필요 없었으며 거지가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제주를 모범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구현하고자 하는 신삼무정신은 제주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모범적 자치공동체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③ 혼저옵서예 정신 : 친절한 인심, 대외적 개방, 다양성 추구,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행동

혼저옵서예는 대외적 개방에 필요한 친절과 좋은 인심을 상징화한 것으로 사회성원 각자가 개방적, 관용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제주인의 의식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지만 21세기 친화력이

있는 사고와 행동의 함양 속에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우리 것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도 베풀어야 하겠다.

무뚝뚝한 태도나 말씨로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친절한 언어와 미소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이나 환경적 영향으로 외지인에 대한 거리감과 경계심을 점차 버리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로서의 위상도 한껏 높이는데 혼저옵서예가 정신적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④ 이어도 정신 : 개척정신, 세계화 이상국가

현재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서 이어도라는 환상의 섬을 만들었던 제주인, 그들에게 이어도는 현실을 벗어나고픈 공간이었고 이상향이었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뒤로 하면서도 이어도는 제주인에게 꿈이자 소망이고, 현실이었다.

이러한 이어도를 제주인들은 허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정신과 하면 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상사회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현재 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평화의 섬 이미지도 함축하고 있다.

모두가 꿈꾸는 사회, 평화로운 섬, 이어도는 모두가 살고 싶어 했던 곳으로서 최근 제주사회가 세계화 및 평화의 섬으로 다가서는데 기본 전제도 될 수 있다.

⑤ 새수놓음정신 : 참여적 공동체 구현

새수놓음정신은 앞서 열거한 조냥정신, 신삼무정신, 혼저옵서예정신, 이어도정신을 이어주는 핵심적 고리이며 참여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이룬다.

새수놓음정신은 상부상조 협동, 단결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만, 새수놓음정신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수놓음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즉, 과거 단순 노동교환형태에서 벗어나 개별화, 원자화, 분자화 되기 쉬운 현대 사회의 사회적 삶이 공동체적 연대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재해석된 것이다.

새수놓음정신은 협동, 관용, 봉사, 타협, 인권존중 등 민주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조건들을 포함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포섭하고 융화하여 새롭게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새수놓음정신을 통해 도내 외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인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총화적 단결을 이룸으로써 참여적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밑바탕을 이루

는 데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본다.⁷²⁾

이상의 제주 문화정체성 교육의 내용구성의 원리에 따라 ‘제주정신’ 및 그 세부 가치 덕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제시해 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정신 | 세부가치덕목 |
|---------|--|
| 삼무정신 | 정직, 성실, 신용, 절약, 준법, 정의 |
| 조냥정신 | 근면, 소박, 합리적 정신, 절제, 자주 |
| 수눌음정신 | 협동정신, 상부상조, 타인배려, 공동체의식, 화합, 인정 |
| 혼저옵서예정신 | 자립자주정신, 주인의식, 친절, 개방, 자부심, 깨끗함과 강인함 |
| 이어도정신 | 개척정신, 평안정신, 하면 된다는 의식, 꿈과 이상향 실천, 미래지향 |

2. 세부 가치 · 덕목의 구체화 및 해설

1) 삼무정신

① 삼다(三多) 삼무(三無)

· 三多란, 石多(돌), 風多(바람), 女多(여자)를 말한다. 그래서 제주도를 三多島(삼다도)라고 일컫기도 한다.

石多(석다)는 지난날 한라산의 화산활동에서 연유한 것이다. 제주인들은 땅을 덮은 술한 돌덩이를 치워 밭을 개간하고 風多(풍다) 역시 石多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생존환경이 매우 각박함을 말해준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해 있어서 예로부터 제주인들은 바다와 싸우지 않으

⁷²⁾ 김향원(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p. 126-127.

면 안 되었다. 風多의 영향은 石多와 함께 제주의 생활모습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돌 울타리를 쌓고 나직한 지붕을 새(띠풀)로 엮어맨 제주초가나 돌담으로 울타리를 두른 밭들이 그 예들이다. 포구를 만들며 방호소의 성담을 쌓는 긴 과정을 통해 제주를 개척해 왔다.

女多(여다)란 원래 제주의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어로작업 중 많이 조난, 사망하여 여자가 숫적으로 많았던 데 연유한다. 그러나 제주의 생활환경이 각박하여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데서 붙여진 측면이 더 크다. 女多는 인구통계의 비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주여성들이 근면하게 일한다는 비유라고 해야 옳은 것이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어획하는 海女(해녀)는 여성들이 바다로 나가서 일하는 女多의 섬 제주를 표상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 三無(삼무 - 도둑, 대문, 거지)란, 제주에는 도적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고 하여 나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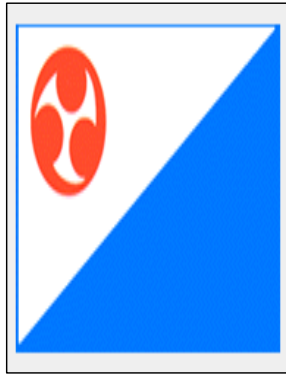
제주인들은 예로부터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근면·절약·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아서 도적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고 집에 대문도 없이 살았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는 어느 집안을 가릴 것 없이 탐라의 후예이거나 지조를 지키다가 유배되어 온 뼈대 높은 선비들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서 명예심을 중히 여길 뿐 아니라 좁은 섬 안에서 서로 익히 알기 때문에 나쁜 짓이나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립·자조·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었으니 제주인들은 평소 근면 절약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이루어 집의 대문도 필요 없었다. 집주인이 일터로 나갈 때 사람이 없다는 표시로 집 입구에 긴 나무를 걸쳐두면 되었다. 이 나무가 제주의 '정낭'이다.

② 삼무정신에 대한 문헌적 자료

그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제주도기(濟州道旗)에 대한 설명으로 삼무정신의 문헌적 자료가 되고 있다.



1.  청 삼각은 숭고한 한라산과 대지
 백 삼각은 하늘을 상징
2.  태양
3.  물결은 도의 영원한 번영기원.
 “삼다삼무속의 순결한 도민”

제주도기(濟州道旗)⁷³⁾

제주인의 얼을 표현한 제주도기(濟州道旗)에도 삼무정신이 표현되어 있다.

제주도기에는 한라산 상공에 뜬 둥근 태양 속에 ‘삼다’를 상징한다는 3개의 빨간 색 물결과 그 물결이 그려지고 나서 생긴 3개의 하얀 날개를 가진 스크루 모양을 ‘삼무’라 상징하여 ‘삼다 삼무속의 순결한 도민’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인의 얼과 나아갈 바를 밝히는 제주도기의 별칭은 삼다삼무기(三多三無旗)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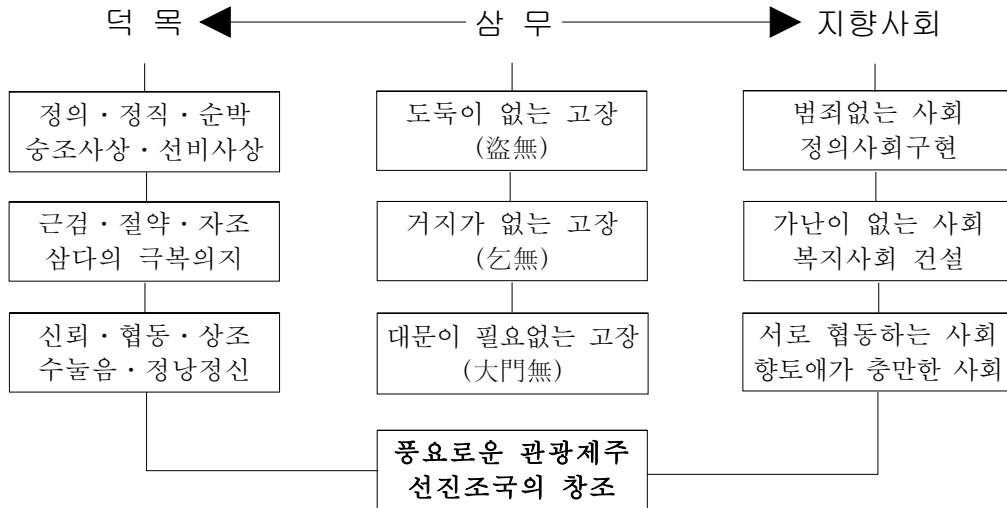
최근 삼무정신이 지역정신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논쟁거리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는 운동도 있어왔었고 특히, 그 캠페인은 전국가적인 새마을 정신의 덕목과도 관련되어 확대된 적도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제주도의 청소년 학생과 초·중등교사가 정례적으로 연수를 받는 제주도 청소년 교육의 총본산인 탐라교육원의 본관 건물이름은 삼무각(三無閣)이며, 개원 기념비에는 삼무정신을 고취하는 당시 교육감의 비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무정신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정신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전 초·중등학교에서 삼무정신 덕목 교육이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루어졌고, 이의 생활화를 위해 표 1에서와 같이 그 형식은 학교마다 다소 다를지라도 교육현장 요처에 자료를 제작·게시하기도 하였다.

⁷³⁾ 자료 ; 濟州道誌의 속표지에 설명된 제주도기.

【 제주도 초·중등학교 정신교육 덕목 】



자료 : 서귀포여자고등학교의 복도에 게시된 제주도 지역정신 교육자료(1993년).⁷⁴⁾

③ 삼무정신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역정신이란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삶에 자극을 주는 환경에 대응한 생리·심리적인 문화 지리적 단위 집단의 정향의지(定向意志)이다.” 이러한 지역정신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제기되는 첫 번째 논쟁은, 한 지역의 주민 정신을 외지인이 명명한 규범적 진술인 삼무(三無) 즉 ‘세 개가 없는 정신’ 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반론이다.

삼무정신이 상징하는 바가 현사의 해석에 불과한 그리고 비존재개념(否定的 概念)⁷⁵⁾ 이라서 전향적 내지는 미래 지향적인 계도력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삼무정신이 제주인에 대한 긍정적 가치 평가이기는 하나 시대정신이 들어있지 않다는 데서 도대체 세 개가 없는 정신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회의인 것이다.

74) 송성대(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 제주 : 제주문화.

75) ‘그것이 세 개가 없어야 한다.’ 는 식의 행동 지침으로서 하나의 계율 아니면 이념이 될 경우, 자칫 제주도에는 역설적으로 도둑과 거지가 많고 이웃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삼무정신이 제주인의 대표적 정신이라는 데에 대한 보다 결정적인 회의는 정신문화의 구성체계, 즉 공동체 집단의 생존·생활을 위한 체제 형태(개인 혹은 집단주의)로서의 심상이념(心象理念), 그 이념의 선도계층(엘리트, 市民 人民民族 등) 으로서의 표상이념(表象理念), 그 이념의 실천철학(실용주의, 경험주의, 지성주의, 인간주의)으로서의 실천이념(實踐理念) 중 어디에도 끼워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삼무정신이 어떤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규범이나, 제주인의 외형적 이미지로서 지역 정신문화를 설명하는 요소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범제주인(汎濟州人)의 역동적 삶의 에너지인(氣) ‘얼’로서의 시대적 정신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무정신이 이러한 논쟁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한 지역정신으로서 삼무정신이 대중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삼무정신이 하나의 이념으로서 대중적인 공감을 얻고 미래를 계도할 수 있는 시대적 정신이 되기에는 어떠한 조건에 만족되어야 하는가.

어떤 표상되는 이념이 제주인의 정신이 되려면 첫째, 제주인으로 하여금 경쟁력이 있도록 인격의 주축을 이루는 진리와 정의가 혹은 옳음과 좋음이 통일된 정신 즉, 지정의(知情意)를 일관하는 통일된 정신으로서 자존심, 자긍심을 심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개방적인 인간이 되도록 가장 제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것 같고 가장 세계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제주적인 것 같은 정신 이라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는 인체 피부와 그 보조기능을 하는, 언제라도 갈아 입을 수 있는 옷과 같은 것으로 의도함이 없이 스스로 향유되도록 하려면 가장 예스러우면서도 가장 새롭고 가장 새로우면서도 가장 예스러운 것이라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야말로 지역정신이 하나의 이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삼무정신에 대한 논쟁거리 역시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잊고, 잃어버리고 숨어 있는 범제주인의 참다운 표상과 이념으로서의 삼무정신을 되살리는데 아직도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2) 조냥정신

제주인이 지향하는 정신적 덕목 중 ‘조냥정신’은 원래의 뜻이 식량을 아끼라는 뜻으로 ‘절량정신(絶糧精神)’이라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하다못해 동냥이라도 할 수 있는 논농사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⁷⁶⁾ 절약·절제의 독특

한 제주규범이다.

한창영(韓昌榮)도 그의 조낭精神論에서 ‘비축(備蓄; 有 備無患)’ 하는 정신이야말로 조낭 정신의 정수요골수라고 주장하고 있다.⁷⁷⁾ 따라서 검소가 비루함과 다르듯이 제주인에게 있어서 조낭은 차라리 재난 시에 대비한 먹을 식량의 비축의미가 강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제주의 선인들이 ‘쓸데는 쓰고 쓰지 않을 때는 가려서 쓰지 말라’ 는 뜻으로 ‘줍쌀만이 애끼쟁어난 담돌만이 해롭다’ (줍쌀처럼 아끼려다가는 나중에 큰 돌만큼 해롭게 된다). 그리고 가량성을 ㄱ지라(겨낭성을 가져라)를 강조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물론 뽀뜨니 공(功)이다. (절약한 덕에 산다)라 하여 악덕의 인색(stinginess)보다는 해품을 경계하는 속담도 있지만 가량성은 인색과 해품 모두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갖는다. 즉, 재물이 있는 가운데 쓰지 않는 ‘자린고비형’ 구두쇠 정신이 아니라, 빈곤하지만 더 궁한 시기에 대비해서 늘 긴장한 가운데 허리띠를 조일 필요는 있지만 쓸 데는 쓰라는 가르침이었다.

그것은 제주 사람들이 매가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하여 잘 쓰는 ‘반에반승하라’ 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색한 사람을 ‘뿔쟁이(깍쟁이)’, 있으면서도 베풀지 않고 취하려고만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야짚다리(욕심쟁이)’ 라 불려 경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시기(猜忌)와 질투의 화신이라는 뜻의 ‘게움다리(시샘쟁이)’ 와 같이 뿔쟁이를 상면치 못할 사람으로 취급했다. 제주인들은 비록 가난하여 절제정신 내지 겨낭정신을 강조했지만 그 반면에 베푸는 정신을 늘 고취해 왔다.

다음은 말총(말 꼬리털)으로 갓과 망건 등 즉 잉태를 자으면서 여성들이 윤창으로 부르는 노동요인데 여기에서 제주인의 베풀 정신을 잘 엿볼 수 있다.

내 바늘아 내 바늘아
서울 놈 술잔 돌리듯
어서 속히 돌아가라
이 양태로 집을 사고
이 양태로 밭을 사고
늙은 부모 공양하고
일가방상⁷⁸⁾ 고적하고
이웃사촌 부조하게

76) 종합적 기능을 갖는 소도읍적(小都邑的)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가깝다.

77) 한창영(1982), 「濟州道」, 한일문화사, p. 259.

가량성으로 나타나는 제주 사람들의 그 절제정신은 빈번한 흉년의 내습에 적응한 결과이다. 조냥 정신에 절약의 의미만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좁쌀정신’ 이 되어 버릴 수 있다. 사실 조냥 정신의 강조는 소비 행위가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소비는 악덕 이다.’ 라는 것을 넘치지 가르치기 위해 쓰여 지고 있다. 낭비가 악덕이지 소비가 악덕인 것은 아님에도 말이다.

따라서 조냥 정신은 도전적인 정신과 베푸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사회에서 그 용어 사용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정신이라 할 수 있다.

3) 수눌음정신

‘품앗이’나 ‘두레’, ‘계’와 같은 조직들은 우리나라 전통적 협동 체제라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상부상조 정신은 ‘수눌음’이란 미풍을 통해 발현했는데, 수눌음은 ‘수눌어 일하다’의 명사형으로 육지부의 ‘품앗이’에 해당되는 제주식의 노동교환 방식이다.

수눌음 체제 하에서는 부득이하게 노동력을 되돌려줄 수 없는 경우만 인력비를 제공하고, 일당 개념의 품삯을 받지 않는 대신 노동력으로 되돌려 받는 게 관례였다. 이런 방식으로 틈틈이 이웃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나면 자기 집에 일손이 필요할 때 최대한의 노동력을 소집할 수 있었고, 자기의 노동력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되찾아 쓰는 ‘노동은행’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수눌음’은 남녀노소의 노동가치라든지 일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해 똑같은 형태로 되갚는 일대일 대응 맞교환이 아니었다는 게 특징이다. 수눌음의 미덕은 비단 농사일에만 해당된 협조체제가 아니라 연자매 작업이나 초가지붕을 새로 이는 일과 같이 1년 사계절 공동작업이 필요한 일이라면 모든 방면에 걸쳐 실행됐다. 서로 어우러져 일을 거드는 이웃들은 제집 일처럼 성의껏 맡은 바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일처리를 놓고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

또한 입담 좋은 아낙은 우스개 소리로, 소리꾼은 흥타령으로 끊이지 않는 만담과 웃음꽃이 피워내니 아무리 고된 노동터이지만 놀이판처럼 웃고 즐기며 일을 마칠 수 있었다. 해질 무렵 동네 일꾼들이 돌아올 무렵엔 벌써 내일 품앗이 할 집의 일에 대해 서로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농촌 환경의 변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수눌음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더 이상 보편적인 협동적 노동형태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수눌음의 본질적 의미가 협동 상부상조 공동체적 연대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수눌음은 산업화된 현대사회와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해석되고 되살릴 필요가

78) 일가방상 이란, 동고조 8촌 이내의 친족으로 ‘방답’ 이라고도 한다.

큰 전통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사회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도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흩어진 각자의 힘을 제주 공동체라는 틀 속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놓음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길 좋아한다. 특히, 노동력에 대해서는 더욱 돈의 가치와 대응시켜 철저한 실득을 논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지역공동체사회의 신뢰와 결속을 다져 준 수놓음을 상기함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수놓음’의 미풍은 단순히 노동력 교환이라는 타산적 이해 방식을 넘어, 바쁠 때 내 집 일을 도와준 이웃의 수고를 헤아리고 보답하려 했던 인정 넘치는 선심이 함께 했다는데 있다.

4) 혼저옵서예

먼저 혼저옵서예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혼저’라는 단어는 ‘빨리’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으로서 이 단어는 다른 동사와 결합해서 아주 많이, 폭넓게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이다.

‘옵서’라는 말은 ‘온다’라는 말의 변형된 형태로서, ‘온다’라는 말보다는 좀더 지시적인 느낌이 들고, 또한 손윗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은 높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예’라는 말과 결합하면, 더 부드럽고 높임말이 되긴 하지만, ‘예’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옵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에서도 밑에 ‘짹’ 받침을 넣어서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 많이 쓰인다. 따라서 이는 제주인이 외지인에 대한 폐쇄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이하겠다는 어원적 의미로 높임을 통해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겠다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고 보겠다.

혼저옵서예에 대한 개념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먼저 제주 사회가 관광을 주력 산업의 하나로 설정하는 한 관광객들에 대한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배타적이고 거리감을 느끼던 외지인에서 벗어나 그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제주의 산업은 풍요롭고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 과거에서처럼 제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문화도 알고 이해하면서 제주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서 어서 오라는 어원적 의미처럼 지리적 변방에 위치함으로써 갖게 될 수 있는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물리적 폐쇄주의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고 제주인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혼저옵서예는 개방과 개혁을 의미함과 동시에 물리적 폐쇄주의 즉 지리적 특성이나 자연환경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는 적극성을 최대로 신장시키는 것이다.

적극적 개방과 대외적 자신감 및 당당함이 혼저옵서예에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친절과 인심 등과 같은 개념이 친절을 제공하지 않고 집안으로 외부 손님을 초청하는 것이 집주인의 예의가 아닌 것처럼 개방과 대외적 자신감은 친절과 좋은 인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 있어야 만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친절과 좋은 인심은 열등감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태도며 행동인 동시에 무뚝뚝함, 불친절, 험한 인심은 개방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일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 국제자유도시에 발맞추어 제주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의식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제주정신의 하나인 혼저옵서예 정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5) 이어도정신

파랑도(波浪島)로 불리기도 하는 전설의 섬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환상의 섬으로 일컬어져 왔다. 어민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 온 “이어도 하라 이어도 하라 ~ 이어 하면 나 눈물난다.” 로 시작하는 노랫말은 이곳에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자 그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어도, 옛 제주 사람들이 바람 많고 돌이 많은 땅에서 생활해 나가며 키워왔던 꿈, 해녀들이 물질을 하며 그리던 곳, 그곳이 바로 이어도이다 이어도라는 섬은 제주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이다. 꿈이란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생활상이 어떠했기에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이어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주 사람들에게 이어도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와 동일한 개념이다. 제주사람들이 그려내는 이어도의 모습은 당시의 현실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설 속에 있는 살기 좋은 섬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야만 가는 섬
 진복 많고 미역 많은 꿈의 섬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
 배를 타고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사는 섬
 수평선에 하늘거리는 하얀 섬
 제주도 사람들의 이상향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어도를 그리고 있다. 그것이 처음에 어떤 전설에서 시작되었든 어떤 민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어디선가 전해들은 이어도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도를 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꿈과 희망을 주지만 절망을 주기도 하고, 늘 그리며 살지만 살아서는 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수평선에서 하늘거리고, 이런 모순되는 면이 이어도의 이중성이라는 공통점을 만들어 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묘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는 모슬포, 조천, 동 김녕리 3곳의 전설과 제주도 민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옛날 제주도의 한 마을에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돌아올 줄을 몰랐다.
 이 배는 풍랑을 만나 한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 이어도로 떠났다는 전설도 있고
 그 남편을 그리며 이어도를 노래한다는 설도 있다

전설에서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모두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천신만고 끝에 풍랑 뒤에 표류하게 되는 섬이 이어도라는 점은 같다. '그 섬은 바람 한점 없고 낙원 같은 곳이라는 것, 아내는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이 이어도에 갔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이어도 전설의 기본 줄기 이다.

제주 민요에서도 이어도는 이야기가 있는 사실 부분과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구에

모두 나타난다. 사설은 주로 민요 중에서도 해녀들의 노래에 많이 나타나고 멧돌·방아 노래에서도 보인다.

「민요 -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히 이어도 사나 예예 이어도 사나 히
우리 배는 무슨 배니 솔나무 배여 솔랑 솔랑 잘도 간다.
이어도 사나 히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히
우리 배랑 미역 줌 검태 줌 물이 잘도 들어 간다 ~

노랫말은 바다에 고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잦아 그 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제주도의 해녀들이 잠수질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장으로 노를 저어가면서 하는 소리로 이 민요를 부르기도 한다.」

해녀 노래 중에 ‘점복 한 이어도 메역 한 이어도 점복이영 메역이영 히여당 우리 아들 공부 시기키여 이여 사나 이어도 가자 이어도’ 79) 라는 노래가 있다. 전복과 미역이 많은 이어도에 가서 이것들을 따다가 아들을 공부시키자는 노래이다. 여기서 이어도가 풍요롭게 묘사되고 있다.

방아 노래 중에는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이여흐난 나 눈물난다. 이여랫말 말아니 흐라 말고가민 놈들이웃나 이여이여 이여도 흐라...’ 80)

이 노래는 ‘이여’ 라는 말만 들어도 나는 눈물이 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도가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배를 타고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이 이어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그러나 ‘이여’ 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니까 ‘이여’ 라고는 하지 말라고 노래하고 있다.

멧돌 노래 사설도 방아 노래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여이여 이여도굴양 이엿말라 그네 말아근가라 말아근가민 놈이나웃나 대로 한질라그네 놀래로 가라.’

이여도 라는 말은 하지 말고 가라고 한다.

‘이여’ 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니까 ‘이여’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가라는 멧돌노래와 방아노래는 이 부분이 모두 사설만이 아니라 후렴으로 쓰이기도 한다.

79) 김영돈(1965), 「제주도 민요연구 上」, 일조각.

80) 현용준·김영돈(1983), 「한국구비문학 9-3」 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맷돌노래 | 방아노래 |
|---------------|---------------|
| A. 이어이여 이어도하라 | A. 이어이여 이어도하라 |
| B. 이연이연 이어도하라 | B. 이연이연 이어도하라 |
| C. 이어이여 이어도방에 | C. 이어이여 이어도방에 |
| D. 이연이연 이어도방에 | D. 이연이연 이어도방에 |

제주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방아를 찧으면서 이어도가 늘 곁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가면서 물질을 하면서 제주의 여인들은 이어도를 노래하고 있다. 물론 제주민요 중에는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주로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민요에서는 보통 이어가 한이 서려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리며 그가 이어도에 갔다고 믿으며 이어도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 이어도란 말만 들어도 나는 눈물이 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이어도에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슬픔, 이어도에 동료를 잃어버린 슬픔이라고나 할까. 민요가 아내의 정서를 대변해 주고 있다. 주로 제주 민요는 여자들이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위에 제시한 해녀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와 같이 힘을 주기 위해 별 의미 없이 쓰이기도 한다. 전설 속의 이어도는 너무 좋아서 살아 버리는 섬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섬으로 그려지고 있다.

민요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는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남편이 이어도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민요와 전설 속에 이어도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의 긍정적인 섬이 아니다. 제주여인에게는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슬픔과 절망의 섬인 것이다.

송성대 교수는 ‘이어도’가 양가성(兩價性)을 지녔다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행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원죄를 지은 저주의 땅, 에덴동산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말은 민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어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준다. 풍요롭지만 살아서는 갈 수 없는 매력적인 곳이 바로 이어도이다.

이처럼 제주인에게 있어 이어도는 행복의 섬이며 동시에 죽음의 섬이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이 섬은 삶이 힘든 이곳 사람에게는 차라리 행방의 섬이기도 했고, 제주 섬이 주는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벗어나려는, 마치 혁명사상과도 같은 것이다. 어쩌면 옛 탐라국에 대한 향수일지도 모른다. 온전하게 자치국이었던 탐라국에 대한 그리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제주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현실은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도 힘에 부치는데 땅마저 척박하고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눈을 돌려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풍요로운 바다가 제주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발이었다. 바다 받은 땅의 척박함을 풀어주는 희망과 풍요의 공간이 되었고 이어도라는 상상의 섬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섬에 있어서 바다란 섬사람들을 가뉘 두기도 하지만 그 끝없는 수평선은 거기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희망과 설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낙원에는 힘겨운 노동도 없고 척박한 땅도 없고 수탈도 없다. 하지만 바다도 언제나 만만한 것은 아니며 바람 많고 태풍이 잦은 제주 바다에 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바다에 나가면서 항상 죽음을 염두해 두어야만 했으며 이어도도 마찬가지이다.

예로부터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상상속의 그 섬이 오늘날에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그 곳이 어디일까 찾아보자는 시도도 있었다. 그 결과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에 있는 수중 암초를 이어도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정확히는 이어도를 찾는 노력 끝에 발한 것이 아니고 해도(海圖)에 나와 있는 수중암초 파랑도 소코트라 락의 우리식 이름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혹시 이곳이 전설 속에 이어도가 아닐까 하는 추측에서 이어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암초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어도’라고 했다. 여러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이어도라고 정했다고 하지만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람들에게도 이 암초가 암암리에 이어도라고 전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⁸¹⁾

민화에서도 이어도의 모습은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 학을 타고 구름 위를 날기도 하고 하늘 위에 떠 있기도 하고 신선이 되기도 하고, 상상의 섬이기에 현실속의 자신과 반대의 모습이거나 그들이 각자 꿈꾸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어도를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이어도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어도를 여인국으로 보는 전설이라든지, 물질하러 나간 동료 해녀가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는 곳이 이어도라는 민요의 내용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이 이어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어도를 노래하는 민요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회자되는 한 제주도 전설로 이어도가 계속 교육되어지는 한 이어도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며 새롭게 정립해야 할 사명이다.

제주 사람들이 가졌던 꿈, 해녀들이 물질을 하며 아련히 가슴속에 품어왔던 이어도 정신에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희망과 상상의 섬으로 승화시킨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도록 해야 한다.

81) 전설속의 섬이 꼭 실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상향의 실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재를 증명하려면 보다 많은 연구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것도 없이 선부르게 단정 짓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현행 [도덕] 교과와의 연계성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독립 교과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일이야 말로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문화정체성이란, 지역 문화의 기본 틀임과 아울러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안을 마련해 주고, 또한 자칫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는 정체성 존립유무를 확인시켜주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고, 살아가야 할 문화적 기틀을 확립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정체성을 스스로 찾고 가꾸는 작업을 꾸준히 교육시키는 일이야 말로 학교가 담당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다. 제주인을 하나로 묶을 이념적 무기와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일이야 말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생존, 생활을 위해 필히 갖추어야 할 도구로서의 문화정체성은 자칫하면 배타주의나 지역이기주의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애향심 함양, 지역의 올바른 발전 방향 제시 등에서 제주정신은 중요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교육적 필요성 특히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운데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제주인 양성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중등학교 현장에서 제주문화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현재 학교에서 교수되고 있는 다양한 교과를 통해 접근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등은 아무래도 정체성 함양의 교육에 관련이 깊은 교과들이라 할 수 있다.

국어과에서는 언어생활 편에서 점차 사라지고 왜곡되어 가는 제주방언이나 사투리의 현주소를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지역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사회과에서는 제주인의 의식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환경 이라든지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합리적 관점을 습득하고 제주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비판·종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제주정신’의 교육을 통한 정체성 함양에 가장 관련이 깊은 교과는 도덕과라 하겠다. 도덕과에서는 각 생활영역별로 핵심 가치 및 덕목, 생활 예절을 습득케 하고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자칫 지역 이기주의와 민족 우월주의, 폐쇄주의를 낳을 수 있을 제반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 이해는 물론, 국가

민족 지역사회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될 때 갈등 해결 및 의사결정능력 등의 도덕적 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학교 도덕교과서의 분석을 토대로 ‘제주정신’의 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행 도덕과의 영역별 핵심 가치 덕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²⁾

| 영역 | 개인생활 | 가정·이웃 학교생활 | 사회생활 | 국가·민족생활 |
|----|------------------------------|-------------------------------|-----------------------------------|-----------------------------------|
| 덕목 |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애향 |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의식 | 국가애 민족애 인류애 평화통일 안보의식 |

앞서 연구자가 선정한 바의 제주정신의 세부 가치 덕목과 현행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가치 덕목을 비교하면 서로 겹치는 가치 덕목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정신’을 중등학교 현장에서 교육함에는 도덕과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율적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도덕 교과서의 내용과 제주정신의 내용을 대비시키면서 그 관련성을 도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면 아래와 같다.

⁸²⁾ 교육부(1998), 「중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 해설」, 내용 체계표 참조.

<표-12> 제주정신과 도덕과 내용 체계

| 생활 영역 | 중학교 1학년(7학년) | 가치 덕목 | 중학교 3학년(9학년) | 제주정신 |
|------------------|---|--|---|--|
| 개 인 생 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의미와 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에서의 규범의 필요성 · 관습과 법 도덕의 비교 · 양심적인 도덕 ·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 | 생 명 존 중 성 실 정 직 자 주 절 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설계와 가치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가지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가치들 · 도덕적 가치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 · 삶의 목표 설정과 계획 반성하는 삶 | 삼무정신 정직 · 신용 · 독립 심 · 자립 · 자주 정 신 강조 조낭정신 검소 · 절약정신의 생활화 절제의 미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의 발견 · 개성의 존중과 신장 · 훌륭한 인격 · 인격 도야의 자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갈등이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 가치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 가치 갈등 해결의 기본 자세 | 수눌음정신 타협 · 관용 협동정신 공동체적 연대 다양성 인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삶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본래적 가치 추구 · 자기 존중과 생명 존중 · 사랑과 관용 · 감사하는 마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문제와 도덕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판단이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들 · 도덕 판단의 과정과 절차 · 도덕판단의 검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단계로서의 청소년기의 특징 · 청소년기의 도덕적 의미와 중요성 · 반성하고 절제하는 생활 · 능동적, 진취적인 삶 | | | 삼무정신 정직 · 신용 · 독립 심 · 자립 · 자주 정 신 강조 |

| 생활 영역 | 중학교 1학년(7학년) | 가치 덕목 | 중학교 3학년(9학년) | 제주정신 |
|-----------------|--|----------------------------------|---|--|
| 가정 · 이웃 · 학교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 · 가정의 행복과 화목 · 부모와 자녀간의 도리 · 형제 자매간의 도리 | 경애 효도 협동 예절 애교 애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과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3학년의 위치와 중요성 · 직업과 진로의 탐색 · 진로 설정과 그에 따른 준비와 노력 | <p>흔저옵서예 정신 예절과 친절, 책임감 있는 생활</p> <p>수눌옵정신 협동 · 타협 상부상조 화합과 인정</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간의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의 근본정신과 형식 · 계촌 호칭 예절 · 친족간의 왕래, 교류 · 조상에 대한 예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친족, 이웃 생활과 도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의 도덕문제와 그 해결방안 탐색 · 친족간의 도덕문제와 그 해결방안 탐색 · 이웃생활의 도덕문제와 그 해결방안 탐색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간의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간의 올바른 관계 · 웃어른 공경 · 상부상조의 실천 · 이웃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과 도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우간의 도덕 문제와 그 해결 방안 탐색 · 이성 문제와 그 해결 방안 탐색 · 학연 문제와 그 해결 방안 탐색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에 대한 예절 · 친구, 이성간의 예절 · 선배와 후배간의 예절 · 면학 교칙준수 학교 | | | |

| 생활 영역 | 중학교 2학년(8학년) | 가치 덕목 | 고등학교1학년(10학년) | 제주정신 |
|-------|--|---|--|---|
| 사회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에서의 도덕 문제와 전통 · 도덕의 필요성 · 전통도덕의 내용 · 전통도덕의 적용과 실천 | 준비 타인 배려 환경 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식 문제와 환경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의 변화와 도덕문제 ·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그 해결방안 탐색 · 환경문제와 그 해결 방안탐색 | 수눌음정신 상부상조 공동체적 연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의 도덕문제와 시민윤리의 필요성 · 시민윤리의 기본정신 · 시민윤리의 내용 · 시민윤리와 전통도덕과의 조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화와 청소년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혼란 · 오늘날의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들 · 건전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문화탐색 | 조낭정신 합리적 정신, 정의·합법적 준수, 독립심 혼저읍서예정신 다양성, 수용성 포용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생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사회에서 인간존중 · 자발적 참여, 봉사과 책임의식 · 질서의식과 준법정신 · 공정한 절차와 올바른 의사결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공동체 구현과 공동선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공동체 의미와 공동선의 중요성 · 도덕공동체의 구현을 저해하는 요인들 · 공동선의 추구하고 도덕 · 공동체의 구현 방안탐색 | 삼무정신 정직·신용 법의식 준수 정의 실현 이어도 정신 도덕공동체 실현 이상사회 건설 수눌음정신 공정한 절차 및 타인배려 관용의 자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경제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질을 추구하는 생활 · 근검 절약하는 생활 · 근로와 정당한 부의추구 · 노사 화합과 협력 | | | 조낭정신 근면·절약 삼무정신 정의 사회실현 수눌음정신 화합·협동 |

| 생활 영역 | 중학교 2학년(8학년) | 가치 덕목 |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 제주정신 |
|------------|---|---|--|--|
| 국가 · 민족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민족과 민족문화의 의미 · 우리 민족의 열과 문화유산 ·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 문화교류와 주체성 | 국가에 민족에 안보 의식 평화 통일 인류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 민족 분단의 원인 · 민족분단의 과정 · 민족 분단의 교훈 | 흔저읍서예정신 대외적 개방성 포용력 삼무정신 자립, 자주 독립심 강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국가의 기원과 의미 · 국가 기능과 중요성 ·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 · 우리나라의 이상과 목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 남북한의 통일정책비교 ·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 | 수놓음정신 타협, 관용 다양성 수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 애국애족의 중요성 · 애국애족의 다양한 방법들 ·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와 국익추구 · 중학생으로서의 나라 사랑과 겨레사랑의 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의 변명과 통일 한국의 모습 · 민족공동체의 당면과제와 해결 ·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 세계속의 바람직한 한국 인상 | 이어도정신 통일국가 완성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상사회 건설 제주사회의 세계화 전략으로 이용 가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위성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 | | |

그러나 도덕교육 혹은 제주정체성 교육이 반드시 교실 도덕수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실천·체험 활동에 의한 가치 학습방법으로 현장 견학을 한다든지, 집단수련활동을 통해 제주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는 것, 학급 공동체 및 학교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급훈이나 교훈을 만들어 제주의 정신을 실천해 보는 것도,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하는 체험적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도교육청 주관 아래 특별활동시간이나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강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종 사회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마스크를 통해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접근할 때 그 교육적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가정과 정체성교육

유태인의 정신교육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제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질 제주정신을 심어주는 일차적 교사는 바로 부모일 것이다. 제주인의 얼과 미래의식이 가정교육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삼다의 섬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환경을 극복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삶의 지혜로서 특이한 정신이 형성되었음을 알고, 타지방과 비교해서 무비관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삶의 지혜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주민의 건전한 가치관인 자립심과 독립심, 조냥 정신, 강인과 검소, 근면, 상부상조 등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말로만은 되지 않고 부모가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때만이 효과가 있고 가능할 것이다.

제주인으로 키우는 뿌리는 가정에 있으며 가정에서의 영향이 일생동안 지속될 것이고 가정교육이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학교와 정체성교육

제주도의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줌으로써 제주인 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성공 사례를 들어줌으로서 희망과 꿈을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사들 자신이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 지역 정신이 나타나게 될 배경이라든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교사 연수 기회에 제주도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특강이나 강좌를 설치하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정체성교육

담임교사는 조회나 종례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학교장은 전체 조회시간을 잘 활용해서 제주인 건전한 가치관과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활 시간이나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서 제주인의 가치관 중에 하나를 주제로 선택하여 토의를 시킴으로써 바람직한 가치관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도방법으로는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거나 분 단별로 조사를 하게 한 후에 발표를 시킨다든지 주제를 미리 주어서 준비를 하게 한 후에 토의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능한 한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보다는 스스로 알고 느끼고 판단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주인으로서 고향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애향심과 긍지를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인의 건전한 가치관과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제주인들의 삶속에 이어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바람직한 제주인상을 내면화 하게 될 것이다.

사회교육기관과 정체성교육

사회교육은 직장, 언론, 기타 평생교육(시민단체 포함)기관이 수행하는 교육, 훈련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교육 기관들은 각기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있어 가정과 학교의 교육 목표나 가치 지향과 일관성을 지닐 수는 없지만, 각 기관과 단체들은 제주 사회라는 큰 공동체 속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제주정신과 제주인상을 확립하는 내용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담당해야 할 위치에 있게 된다.

윤리교육이나 인간교육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가정이며, 가정의 부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교육은 사회 교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적 영향력에 비해서 한계가 있으나 학교의 교육으로서 중요한 것이다.

사회교육기관과 정체성교육

제주도의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정신교육을 할 때 삼무정신, 주인의식, 질서 의식 및 친절 의식 등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 붙여서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물 좋고 공기가 맑아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주인 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 및 문화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 온 제주인들의 삶의 지혜인 미풍양속과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미풍양속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가치관의 혼란, 도덕의 타락, 물질만능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및 인간성의 상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제주도의 공동체 의식, 평등 의식, 근검절약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윤리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매스컴과 정체성교육⁸³⁾

오늘날은 매스컴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특집으로 또는 대담을 통해서 다룰 수 있으며 방송에서도 대담프로나 소개하는 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제주도의 역사적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인 으로서의 긍지와 주체성을 심어주고 애郷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성 상실, 퇴폐 풍조 지나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만 맡길 수는 없다.

매스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왔던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도 전통사회의 윤리와 가치관을 지켜 나가려고 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윤리 교육은 지방화 시대와 지방자치를 대비함은 물론 2005년 제주도가 계속 발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함양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평등 의식이 강한 전통사회적인 성격을 유지시키면서 조냥 정신, 자주와 자립, 강인과 검소, 상부상조 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매스컴과 정체성교육

이러한 윤리교육은 한국인으로서 종합성에 저해되지 않고 배타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주인 으로서의 긍지와 주체성을 심어주고 애郷심을 가지도록 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은 지방화 시대와 지방자치를 대비함은 물론 2005년 제주도가 계속 발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함양을 통해서 공동체의식과 평등의식이 강한 전통사회적인 성격을 유지시키면서 조냥 정신, 자주와 자립, 강인과 검소, 상부상조 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윤리교육은 한국인으로서 종합성에 저해되지 않고 배타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주인으로서의 긍지와 주체성을 심어주고 애郷심을 가지도록 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 및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3) KBS 제주방송총국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1996), 김향원(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V. 결 론

이 연구는 세계화 및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제주문화정체성의 확립과제와 그것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함양하는 교육과제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보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하나는 제주의 문화 전통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인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하여 온 의식이나 가치관, 즉 ‘제주정신’의 이해를 통한 접근이다. 이 중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 있다. 요컨대, 이 글의 궁극적 목적은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에 관해서 조사 검토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하되, 특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문제를 탐색한 것이다.

먼저, 논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2장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정체성 담론과 교육적 접근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세계화시대에 정체성 담론은 상호 모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것은 ‘공주체적 자아’를 확립하는 ‘다중적 정체성’ 혹은 ‘다중적 시민성’의 확보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이 필요한지를 논하였다.

3장에서는 제주문화정체성의 한 구성요소로서 제주정신을 검토해 보았다. 제주문화정체성 연구의 두 경향을 전제하면서, 기존연구를 통해서 주장되어온 ‘제주정신’을 검토하였고, 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주정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제주정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보았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제주문화정체성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3장에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내용으로서의 ‘제주정신’을 선정하고 조직한 다음, 각 제주정신에 함의되어 있을 세부 덕목을 구체화하고 그의 의미를 해설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제주정신 및 세부 가치덕목들을 현행 중학교 도덕 교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주정신을 가르칠 핵심 교과는 도덕과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제주인에게 정체성은 제주도라는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떠나 살면서도 제주도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기인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 교육은 제주도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평화의 섬으로 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들이 등장하고 국경과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생리나 곁에 맞지 않은 외래문화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하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나 의식들이 시대변화와 어우러져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적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갈 때 내용과 본질이 포함된 지역문화로 제주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지금껏 가지고 있던 제주인들의 의식 변화는 물론,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통을 이해시키고, 제주인들에게 오랜 삶의 방식의 하나로 전해진 제주정신을 현재 및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정신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논의들도 있었고, 제주인들의 의식조사연구들을 통해서 부정적 측면을 반성해보고, 특히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정체성 강조라는 측면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민족 우월주의, 폐쇄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하겠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많은 제주정신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정신, 즉, 삼무정신, 조낭정신, 수눌음정신, 혼저옵서예 정신, 이어도 정신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가치 덕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하였다.

삼무정신은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는 사회속에서 비생산적인 삶의 방식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도모하고 살기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 모범적인 자치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조낭정신은 제주인의상징으로 제주인들에게 가장 많이 선호되는 정신으로서 과소비와 허례 허식적 생활태도를 버리고 제주인들이 근검절약을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조상들의 생화지침을 현대사회에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생활철학으로서 제주정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눌음정신은 참여적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기초를 이룰 수 있는 제주정신으로서 상부상조, 협동, 관용 등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원자화, 분자화 되기 쉬운 현대 사회에 사회적 삶이 공동체적 연대성을 지닐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눌음정신은 제주인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참여적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밑바탕이 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혼저옵서예 정신은 대외적 개방에 필요한 인심, 친절을 상징화한 것으로서 사회성원 각자가 개방적 관용적 사고와 열린 마음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화의 섬 이미지를 내세우는 데도 꼭 필요한 정신 중 하나로서 21세기 친화력 있는 사고와 열린 행동의 함양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어도정신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룬다는 이상으로서 개척정신과 자립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 정신이다. 이어도정신은 제주사회의 세계화 전략을 이루는데 그 바탕이 될 수 있겠다.

이처럼 제주정신 속에 담긴 가치 덕목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우고 실천하며

제주문화정체성 확립 방안으로 올바르게 활용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제주정신과 관련된 독립 교과목 및 제주정신의 활용은 아직 우리의 교육풍토에 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하면 지역적 우월성 내지 편협한 민족 우월주의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문화적 전통도 모른 채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 버린다면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자신이 속한 문화적 뿌리는 사라져 갈지 모른다. 최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평화의 섬으로서 동북아의 메카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제주인들이 먼저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이다.

정체성 확립방안으로 제주정신 활용은 그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역적 전통이나 정신을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교재 개발이라든지, 홍보책자의 발간 등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정체성 교육을 이끌어갈 인력 충원, 재정적 뒷받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체제하에서 교육 현장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역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육대상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교 급별,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소재도 풍부하게 다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돈(1983), 「제주도 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제주 ; 조약돌.
- 김종업(1986), 「탐라문화사」, 제주 ; 조약돌.
-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교부(1989), 「사회 4-1제주도」.
- 탁석산(2001),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서울 ; 이학사.
- 박용현(1996), 「민주화 세계화와 교육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은희(2002), 「이어도를 찾아서」, 이어도.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 정민사.
- 박아청(1987), 「에릭슨의 아이덴티티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양순필(1989), 「제주도 부락지(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광규(1984),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 일조각.
- 정범모(1990), 「가치관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정세구(1985), 「국민정신교육의 과제」, 서울 ; 교육과학사.
- 제주도(1982), 「제주도지(上)」.
- 송성대(1984), 「삼무정신 형성에 대한 지리학적 조명」, 『제주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일념.
- 송성대(1987),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 정신」, 탐라문화 .
- 김여수(1997),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탁석산 (1999), 「한국의 정체성」, 사회와 철학연구회. 서울 ; 책 세상.
- 송성대(1996), 「濟州人の 해민정신」, 제주 ; 제주문화.
-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도덕·사회, 교육부.
- 신용하(1985), 「공동체 이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김태훈(1998), 「도덕·윤리과 지도 방법론」, 한국 도덕 윤리과 교육학회.
- 교육부(1997), 「도덕과 교육과정」.
- 제주도(1983),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일신사.
- 김영명(2002), 「우리 눈으로 본 세계화와 민족주의」, 도서출판 으뜸.
- 신행철 외(1998), 「제주사회론2」,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조문부 외(1972), 「제주도민의 의식조사연구」, 제주도.
- 고성준 외(2004),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항원 외(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 출판부.
- 송성대 외(1997), 「제주시민의 의식구조 비교연구」, 탐라문화연구소 세미나자료집.
- 권오정(1996), 「국제화 시대의 인간 형성」, 배영사.
- 남종현 외(1984), 「지역경제발전 패턴과 제주도 산업개발전망」, 한국장기신용은행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 피어키, W.W.(1985), 「자아개념과 교육」, 안범희 역, 서울 ; 정음사.
- 국제문화재단(1982), 「한국의 사회」, 서울 ; 시사 영어.
-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학교 도덕 교사용 지도서」,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박병기·추병완(1996), 「윤리학과 도덕교육」, 서울 ; 인간사랑.
- 사회와 철학연구회(2001), 「세계화와 자아정체성」, 서울 ; 이학사.
- 정도용, 신은숙, 정득진(2000),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국제 이해교육」, 정민사.
-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88), 「사회발전연구」, 제 4집.
-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 제주발전연구원(1997),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도덕·윤리 개발위원회(1992), 「윤리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논문 및 기타자료>

- 추병완(1996),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도덕 윤리과 교육」, 7호.
- 고영기(1988), “제주정신의 실천전략”, 「제주정신구현을 위한 세미나」, 제주도.
- 고성준(2000), “남북화해 협력시대와 ‘평화의 섬’ 제주”,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평화의 섬 구상과 초등통일교육」, 세미나 자료집, 제주교육대학교.
- 김항원(1990),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돈(1980), “한국적인 것·세계적인 것을 논의하는 자세”, 「제주도」, 제 77호.
- 고병헌(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선례(2001),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일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김영돈(1983), “제주도 민요에 드러난 생활관”, 「지우변시해박사 回甲紀念論文

集」, 박영사.

- 김인호(1986), “제주도의 전통 문화에 관한 제 평가”,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 진교훈(1974), “윤리학과 한국사상”, 「철학사상의 한국적 조명」, 한국철학회편 일지사.
- 진성기(1975), “제주도민의 생활과 약”, 「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 현길언.(1986), “제주전설과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 「제주문화와 제3세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 『제주 문화의 재조명』, 일념.
- 현평효 외(1979), “탐라정신연구”, 「논문집」, 제11집, 인문·사회과학 편. 제주대학교.
- 현준식(1979), “제주도의 민속예술”, 「제주도」, 제 76호, 제주도.
- 한치문(1969), “제주도 개요 : 정치”, 「제주도연람」, 제주 연람사.
- 고성준·강봉수(2002),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도 연구」, 제 21집, 사단법인 제주학회.
- 현평효 외(1979), “탐라정신연구 세미나”, 「주제발표요지」, 제주대학탐라연구소.
- 강봉수(2002),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과제”.
- 조연순(1996), “세계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세계 교육의 방향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 「새천년 한국인의 정체성」, 제 1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김현덕(2000), “국제이해교육의 개념과 방향”, 「국제이해교육」 창간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강승원(2000), “국제이해교육의 현재적 시사점”,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김진영 김향원 강근영 고성준(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동아시아 연구 논문, Vol. 7.
- 최병길, 권기숙, 강상덕, 김현돈, 한석지, 박찬석(1998), 「제주 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 연구.
- 김진영(1998), 「IMF 와 제주사회」, 제주리뷰.

<Abstract>

**Th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Jeju culture Identity**

- In the center of succession and progress of Jeju's
spirit -

JO, Jeong-A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Su

This study that Jeju province to be introduced in recent fostering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of Jeju Province according to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constr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identity according to globalize and internationalize is a very subjects under the assumption that in this way to establish Jeju's spirit.

In case of Jeju Province, It is said that Identity fostering is a very educational subjects specially in that grope promotion of the special autonomy province in the future.

In that case accepting thoughtlessly of foreign culture not match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Jeju's emotion and dignity, It may be disappear that with harmony of periodic change in Jeju's peculiar culture and Jeju's lifestyle and consciousness through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among globalization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pproaching. It is very important that accepting foreign culture but in case of accepting thoughtlessly foreign culture that Jeju may be remain the outer culture disappeared contents and essence.

First, In order to attain this study's purpose, I arranged that the meaning of culture identity through the concept of identity and identity discussion issued recently.

In chapter II, I arranged that the previous discussion about Jeju's spirit and a moral value and contents of choosing Jeju's spirit. In chapter III, I suggested that the school educational approaching way for the establishment of culture identity.

First of all, In a course of study, morals, social studies, korean language, etc. is abundant related with learning Jeju's spirit but in a this study morals emphasize first and that I expecting that educational effects through teaching-learning method and learning materials and use following that. It is searching for a plan making use of Jeju's spirit in school especially and It is divided into a valuable virtue and contents looking for Jeju's spirit through morals emphasizing a valuable virtue. I suggested the table that related with key virtue an important life of sphere morals, that is to say, privacy, family, neighbor, school life, social life, national life. It is emphasized that Jeju culture identity education is a desirable attempt for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Jeju people in a period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t is true that the use of Jeju's spirit is limited a course of study connecting with the jeju's spirit in a narrow sense. Also, as to the educational evaluation, it is necessary that study about an evaluation system for feedback of educational results and that the editing of textbook or the production of public relations book in harmony with Jeju province's reality, and that supplement of the personnel by leded identity education,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at school, it is necessary tha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I hope that the following study about a concrete educational program in harmony with school level, grade level according to the developing step of education objects and that the change of textbook's contents covered with educational subjects for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appearing regional personality according to personality of a course of studies. Besides, the inheritance and progress of Jeju's spirit for establishing culture identity brings Jeju people itself in a love of native place and subjecthood when it is study that Jeju's spirit or its values.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be finished that Jeju's culture identity education is necessary about an educational theme that students to lead 21C and expecting globalization in harmony with a newly Jeju culture at the same time.